

| SRI-기획-2018-19 |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empathic design for social consideration

정수진·최한솔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최한솔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홍지선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이석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차승화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2월 31일
발행 2018년 12월 31일
ISBN 979-11-89160-52-4 (9365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정수진. 2018.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1. 연구의 개요

-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기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
- 수원형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부문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
- 본 연구는 수원형 공공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감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도입, 공공디자인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효과 강화와 실천 가능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2. 공감디자인 여건 분석

- 공감디자인이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원시 휴먼시티가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정신을 담고 있음
- 공감디자인과 관련한 주요개념으로는 배리어프리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있으며, 먼저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하여 특별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을 의미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과 취지는 같지만 정신적, 시각적인 것을 주로 다루며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시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확장된 범위의 디자인을 아우른다는 것이 특징
- 공감디자인과 관련된 제도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와 같은 인증제도와 인권영향평가라는 평가시스템이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를 지역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도시,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등이 인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공감디자인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법규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 편의법, 교통약자법, 보행안전법 등이 있으나 사회적약자라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애 제거에 중점
- 공감디자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7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조례에서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환경 자체 또는 환경을 만드는 수단, 디자인 행위 그자체로 이해

3. 공감디자인 사례

- 해외사례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확산시킨 미국과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정립한 지역인 영국,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사례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부문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본을 사례로 선정하여 조사 진행
- 국내사례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의 변용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원시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사례로 선정
-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지역의 공감디자인 관련 동향 및 기본계획 또는 행동계획 등의 관련 정책 수립여부, 관련 법·제도, 사업에 대하여 조사 진행
-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려는 방법론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재활공학 등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연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관련 정책으로는 장애인이 모든 기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최고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MOPD가 있으며, 관련 법·제도는 건축장애물법 및 ADA, 재활법 등이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ccess Living 등이 대표적
- 영국은 인클루시브디자인을 통해 사회적·인지적·문화적 제약을 가진 사회 소수 계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으로는 런던 플랜 내 Accessible London을 주제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와 접근 가능한 사회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 법·제도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평등법 등이 있으며, 사업은 Independence Matters, Inclusive Design Challenge 등이 대표적
- 노르웨이는 사용자의 직접 참여와 자문 그룹의 운영 등 좀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를 통해 모든 건물, 대중교통, ICT 등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하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법·제도로는 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와 NS 11010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The Stovner Tower가 있음

- 일본에서는 공용품 또는 공용서비스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구체화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보급이 진행. 정책으로는 배리어프리 마을 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UD시티',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사업 등이 있으며, 법·제도는 하트빌딩법, 배리어프리법, 유니버설디자인정책 대강 등이 있음. 사업으로는 외출안심 화장실 사업, 하트풀 패스 우선 주차장 제도 등이 있음
- 서울시는 도시 전반의 유니버설디자인화를 목표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표 정책으로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이 있으며, 법·제도로 BF인증 대신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교육을 진행
- 경기도는 2013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품이나 안내사인, 정보영역 등도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운영 중. 법·제도는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등이 있음. 사업으로는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체험교육 등이 대표적

4. 수원시 여건 분석

- 공감디자인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감디자인과 관련한 수원시의 여건을 분석. 수원시 인구 현황, 관련 법·조례, 관련 인증제도,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먼저 수원시의 인구 현황을 보면, 수원시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수원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2017년에 영유아 및 어린이는 수원시 총 인구 중 14.4%를 차지하며, 노인인구는 9.29%를 차지. 수원시 장애인 등록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41,411명이며, 2013년부터 장애인 등록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외국인 거주자를 보면 총 37,852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3.05%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역시 필요
- 관련 법·조례를 보면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기본·실시설계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2018년 현재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 관련 인증제도를 보면 수원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 복지 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협의체에 가입,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음. 여성친화도시는 2010년에 지정된 뒤 여성정책팀을 신설,

지속적인 여성친화 정책을 수립, 2015년 재지정되어 2기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중. 고령친화도시는 2016년 인증을 받았으며,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3개년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을 유지

- 다른 인증제도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있는데, 2017년 초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현재 까지 화성행궁, 투표소,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관련 사업으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양지말 어린이공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등이 있음. 먼저 생태교통 수원 2013은 보행중심, 사람중심 도시,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한 압축적 시범사업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양지말 어린이공원은 경기도 내 최초의 장애물 없는 놀이터로, 장애아동들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터를 조성.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은 2017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념·사례에 대한 소개, 팔달구청과 주변 환경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등 진행

5.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공감디자인의 여건분석과 사례에 대한 조사, 수원시의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을 수립
- 공감디자인 비전은 “휴먼시티 수원을 실천하는 모든사람을 위한 공감디자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가치는 ‘참여’, ‘소통’, ‘배려’를 중심으로 실천전략의 방향을 설정. 핵심가치에 따라 추진목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디자인 실천체계 구축,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공감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이라는 세 가지의 목표로 설정
- 핵심전략은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배려하는 공감디자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먼저 참여하는 공감디자인의 세부 전략으로는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시스템 구축,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 지원이 있음. 소통하는 공감디자인의 세부 전략은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감디자인 소통플랫폼 확보로 설정하였고,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세부전략은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으로 설정
- 비전 및 핵심가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비전 휴먼시티 수원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감디자인

가치 공감디자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소통하고 참여는 기본적 가치



참 여



소 통



배 려

목표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디자인 실천체계 구축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공감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	--------------------------------	--------------------------------

전략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세부전략

<p>전략 1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시스템 구축</p> <p>전략 2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 디자인 활동 지원</p>	<p>전략 3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p> <p>전략 4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p> <p>전략 5 공감디자인 소통 플랫폼 확보</p>	<p>전략 6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p> <p>전략 7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p> <p>전략 8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p>
--	---	---

- 전략별 추진 사업을 보면, 먼저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중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시스템 구축에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제도를 추진사업으로 제안.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 지원에서 추진사업으로는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를 제안
- 소통하는 공감디자인의 세부전략인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에서는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 사업을 제안, 두 번째 세부전략인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서는 찾아 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 학교 운영을 제안. 세 번째 세부전략인 공감디자인 소통플랫폼 확보에서는 수다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
-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공감디자인의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에서 추진사업으로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에서는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통합놀이터 설치와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제안.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에서의 추진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수원형 관광을 위한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적용을 사업으로 제안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감디자인의 제도적 기반 구축, 소통과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과 공감디자인 조직의 설치, 공감디자인 매뉴얼,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공감디자인 클리닉 운영, 공감디자인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감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와 같은 소통과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또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개선, 공공시각매체의 개선 등 지속가능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기본방향으로 제시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검토	8
제2장 공감디자인 여건분석	13
제1절 주요개념	13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제도	19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국내 법·조례	23
제3장 공감디자인 사례	33
제1절 사례조사의 틀	33
제2절 해외사례조사	34
제3절 국내사례조사	54
제4절 사례조사의 종합	63
제4장 수원시 여건분석	67
제1절 수원시 인구 현황	67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법·조례	70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인증제도	71
제4절 공감디자인 관련 사업	75
제5장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79
제1절 비전 및 핵심가치	79
제2절 추진목표 및 핵심전략	80
제3절 전략별 추진사업	81
제4절 사업추진계획	113

표 차례

〈표 1-1〉 사례조사의 대상	5
〈표 1-2〉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개요	6
〈표 1-3〉 토론회 개요	6
〈표 1-4〉 공감디자인 관련 연구보고서	8
〈표 1-5〉 공감디자인 관련 학술연구	9
〈표 2-1〉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리	17
〈표 2-2〉 주요개념의 종합	18
〈표 2-3〉 관련제도의 종합	22
〈표 2-4〉 관련 제도의 종합	23
〈표 2-5〉 사회적 가치	26
〈표 2-6〉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27
〈표 2-7〉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28
〈표 3-1〉 사례조사 항목	33
〈표 3-2〉 해외사례의 종합	63
〈표 3-3〉 국내사례의 종합	63
〈표 4-1〉 장래 인구 추계	67
〈표 4-2〉 수원시 영유아 및 어린이	68
〈표 4-3〉 수원시 노인 인구	68
〈표 4-4〉 수원시 장애 등록 인구	69
〈표 4-5〉 수원시 외국인 거주자	69
〈표 4-6〉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협의 현황	70
〈표 5-1〉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81
〈표 5-2〉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사업내용	82
〈표 5-3〉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사업추진계획	83
〈표 5-4〉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내용	83
〈표 5-5〉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추진계획	84
〈표 5-6〉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제도 : 사업내용	85

〈표 5-7〉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 사업내용	86
〈표 5-8〉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 사업추진계획	87
〈표 5-9〉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 사업내용	88
〈표 5-10〉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 사업추진계획	88
〈표 5-11〉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89
〈표 5-12〉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내용	90
〈표 5-13〉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91
〈표 5-14〉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91
〈표 5-15〉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92
〈표 5-16〉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 사업 : 사업내용	93
〈표 5-17〉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94
〈표 5-18〉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계획	95
〈표 5-19〉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 사업내용	95
〈표 5-20〉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 사업추진계획	96
〈표 5-21〉 수다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97
〈표 5-22〉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99
〈표 5-23〉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99
〈표 5-24〉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100
〈표 5-25〉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101
〈표 5-26〉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 사업추진계획	102
〈표 5-27〉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내용	102
〈표 5-28〉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추진계획	103
〈표 5-29〉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사업내용	104
〈표 5-30〉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사업추진계획	104
〈표 5-31〉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 사업내용	105
〈표 5-32〉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 사업추진계획	106
〈표 5-33〉 통합놀이터 설치 : 사업내용	106
〈표 5-34〉 통합놀이터 설치 : 사업추진계획	107
〈표 5-35〉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 사업내용	108
〈표 5-36〉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 사업추진계획	108
〈표 5-37〉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사업내용	109

〈표 5-38〉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사업추진계획	110
〈표 5-39〉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 사업내용	110
〈표 5-40〉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 사업추진계획	111
〈표 5-41〉 수원형 관광을 위한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 사업내용	112
〈표 5-42〉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117
〈표 5-43〉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118
〈표 5-44〉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119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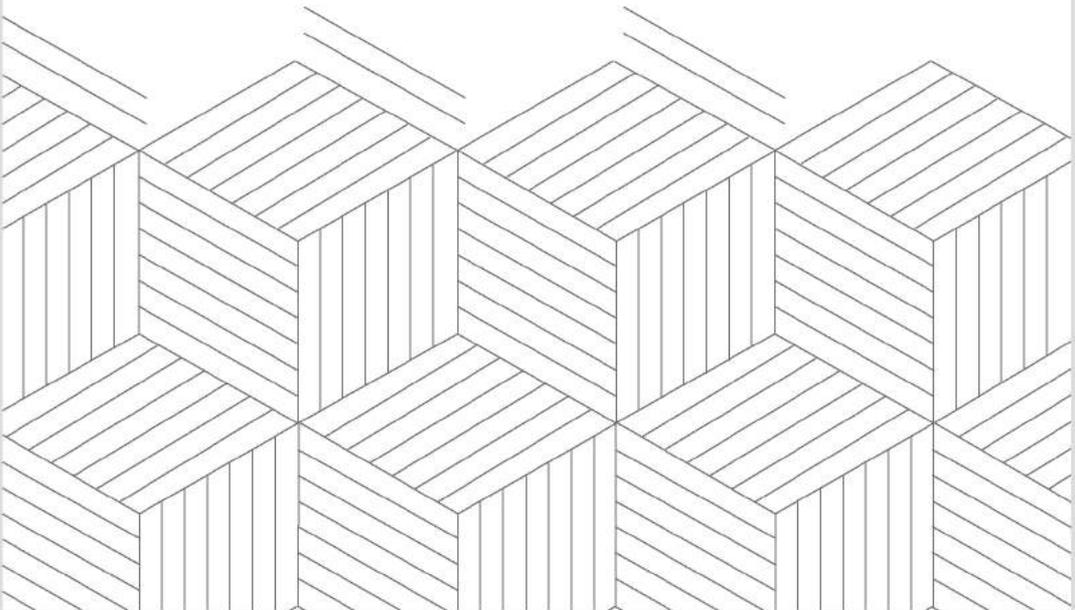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목적	4
〈그림 1-2〉 토론회 포스터	6
〈그림 1-3〉 연구의 방법	7
〈그림 2-1〉 공감의 정의	13
〈그림 2-2〉 공감디자인의 기본방향	14
〈그림 2-3〉 공감디자인의 정의	14
〈그림 2-4〉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정의	15
〈그림 2-5〉 Universal Design Plug	16
〈그림 2-6〉 un lavabos Tilting Sink	16
〈그림 2-7〉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The 7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17
〈그림 2-8〉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19
〈그림 2-9〉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	19
〈그림 2-10〉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20
〈그림 2-1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21
〈그림 2-12〉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절차	22
〈그림 2-13〉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22
〈그림 3-1〉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34
〈그림 3-2〉 MOPD Access Chicago	35
〈그림 3-3〉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37
〈그림 3-4〉 Access Living	38
〈그림 3-5〉 Wesleyan University Arts Center	38
〈그림 3-6〉 Design for London	39
〈그림 3-7〉 Accessible London	40
〈그림 3-8〉 Britain's longest clutter-free street	42
〈그림 3-9〉 런던버스	43
〈그림 3-10〉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43
〈그림 3-11〉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44

〈그림 3-12〉 노르웨이 델타센터	44
〈그림 3-13〉 The Stovner Tower	46
〈그림 3-14〉 치바현 유니버설투어리즘 사례집	48
〈그림 3-15〉 구마모토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팸플릿	51
〈그림 3-16〉 UD 보조사업	52
〈그림 3-17〉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52
〈그림 3-18〉 외출 안심 화장실 사업	53
〈그림 3-19〉 하트 풀 우선 주차장 제도	53
〈그림 3-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54
〈그림 3-21〉 범죄예방디자인안전마을	54
〈그림 3-2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55
〈그림 3-2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56
〈그림 3-24〉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57
〈그림 3-25〉 서울도서관	57
〈그림 3-26〉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58
〈그림 3-27〉 알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교재	59
〈그림 3-28〉 오감으로 느끼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60
〈그림 3-29〉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60
〈그림 3-30〉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체험교육	61
〈그림 3-31〉 산성동 복지회관	61
〈그림 3-32〉 나래 울	62
〈그림 3-33〉 화성시청 민원실	62
〈그림 4-1〉 수원시 인구구성	67
〈그림 4-2〉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71
〈그림 4-3〉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72
〈그림 4-4〉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72
〈그림 4-5〉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영향평가	73
〈그림 4-6〉 화성행궁 인권영향평가	74
〈그림 4-7〉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74
〈그림 4-8〉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74
〈그림 4-9〉 생태교통 수원 2013	75

〈그림 4-10〉 양지말 어린이공원	76
〈그림 4-11〉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76
〈그림 5-1〉 공감디자인 비전	79
〈그림 5-2〉 공감디자인의 핵심가치	79
〈그림 5-3〉 공감디자인의 추진목표 및 핵심전략	80
〈그림 5-4〉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84
〈그림 5-5〉 영국 DQI	85
〈그림 5-6〉 도쿄 마음의 배리어프리 팸플릿	87
〈그림 5-7〉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88
〈그림 5-8〉 송파 참살이디자인단	90
〈그림 5-9〉 경기디자인클리닉	92
〈그림 5-10〉 공감커뮤니티 조성의 단계	93
〈그림 5-11〉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	93
〈그림 5-12〉 경기도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94
〈그림 5-1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96
〈그림 5-14〉 수다플랫폼	97
〈그림 5-15〉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98
〈그림 5-16〉 뉴욕 CAD	99
〈그림 5-17〉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01
〈그림 5-18〉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	103
〈그림 5-19〉 서울시 지하철	104
〈그림 5-20〉 경기도 배리어프리 실태 조사	105
〈그림 5-21〉 양지말어린이공원	107
〈그림 5-22〉 구마모토 외출 안심 화장실사업	108
〈그림 5-23〉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추진사례	109
〈그림 5-24〉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111
〈그림 5-25〉 수원시 문화관광시설의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연구	112
〈그림 5-26〉 Praia Acessível	112
〈그림 5-27〉 공감디자인의 제도적 기반 구축	114
〈그림 5-28〉 소통과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115
〈그림 5-29〉 지속가능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1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검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요 발생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권리이자 인권이며,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수요 발생
-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기본적 가치로 인식되는 추세
- 배리어프리인증제 및 인권영향평가 등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2) 민선7기 수원형 공공디자인의 실천을 위한 전략 계획 필요

- 수원시는 공공건축민간건축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형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수원시의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필요에 의해 조직 개편 및 디자인 총괄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견되어 이에 대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의 필요성 대두
-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부문의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수원형 공공디자인 실천 강화를 위한 '공감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도입 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효과 강화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

- 민선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
- 기존의 수원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의 기본 방향과 가치인식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감디자인의 가치인식을 도모하고 이에 호응하는 전략체계 구축으로 민선7기의 정책 실천방향 제시

2. 연구의 목적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어 공감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수원형 공공디자인 실천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한 장·단기 사업 추진 전략수립

- 수원시 민선7기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구체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수립
- 전략에 따라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제안하며, 단기 및 중·장기 사업 로드맵 제시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적 범위 한정
- 기준년도는 2019년으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후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조사대상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실시, 이를 분석하여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을 제안
- 조사범위는 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②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제도, ③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 ④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내용적 범위를 한정

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 공감디자인 관련 이론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
- 공감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 실시

2) 사례조사

- 사례조사는 서울, 경기 등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표 1-1〉 사례조사의 대상

구 분	사례지역	비 고
국 내	서울, 경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
해 외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 및 정립

3) 전문가 집중검토회의(Focus Group Interview)

- 공감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사례조사 내용 및 공감디자인 추진 전략에 대한 검토를 총6회 진행
- ① 사례 선정 및 분석, ② 공감디자인의 정의, ③ 공감디자인 비전 및 핵심가치, ④ 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중검토회의를 진행

〈표 1-2〉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개요

일 시	참석 전문가	비 고
2018. 06. 14.(목)	김연금 소장, 제충만 과장	■ 공감디자인 전략 사례 선정 및 특성
2018. 06. 21.(목)	이정희 소장, 신희경 교수	■ 각 사례지역의 선정 및 특성
2018. 07. 20.(금)	김용진 교수, 성기창 교수, 최하영 주무관	■ 공감디자인의 정의에 대한 검토 ■ 사례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
2018. 08. 03.~12.	김용진 교수, 성기창 교수, 이석현 교수, 차승화 교수	■ 공감디자인 비전 및 가치에 대한 검토 ■ 서면으로 자문 진행
2018. 11. 23.(금)	이승지 교수, 정규상 교수, 차승화 교수	■ 공감디자인 위계 설정에 대한 제언 ■ 공감디자인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2018. 11. 22.~29.	고영준 교수, 이석현 교수	■ 추진전략에 대한 최종 검토 ■ 서면으로 자문 진행

4) 토론회

- 실질적으로 시정에 적용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확산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 공감디자인 추진전략의 실효성 검증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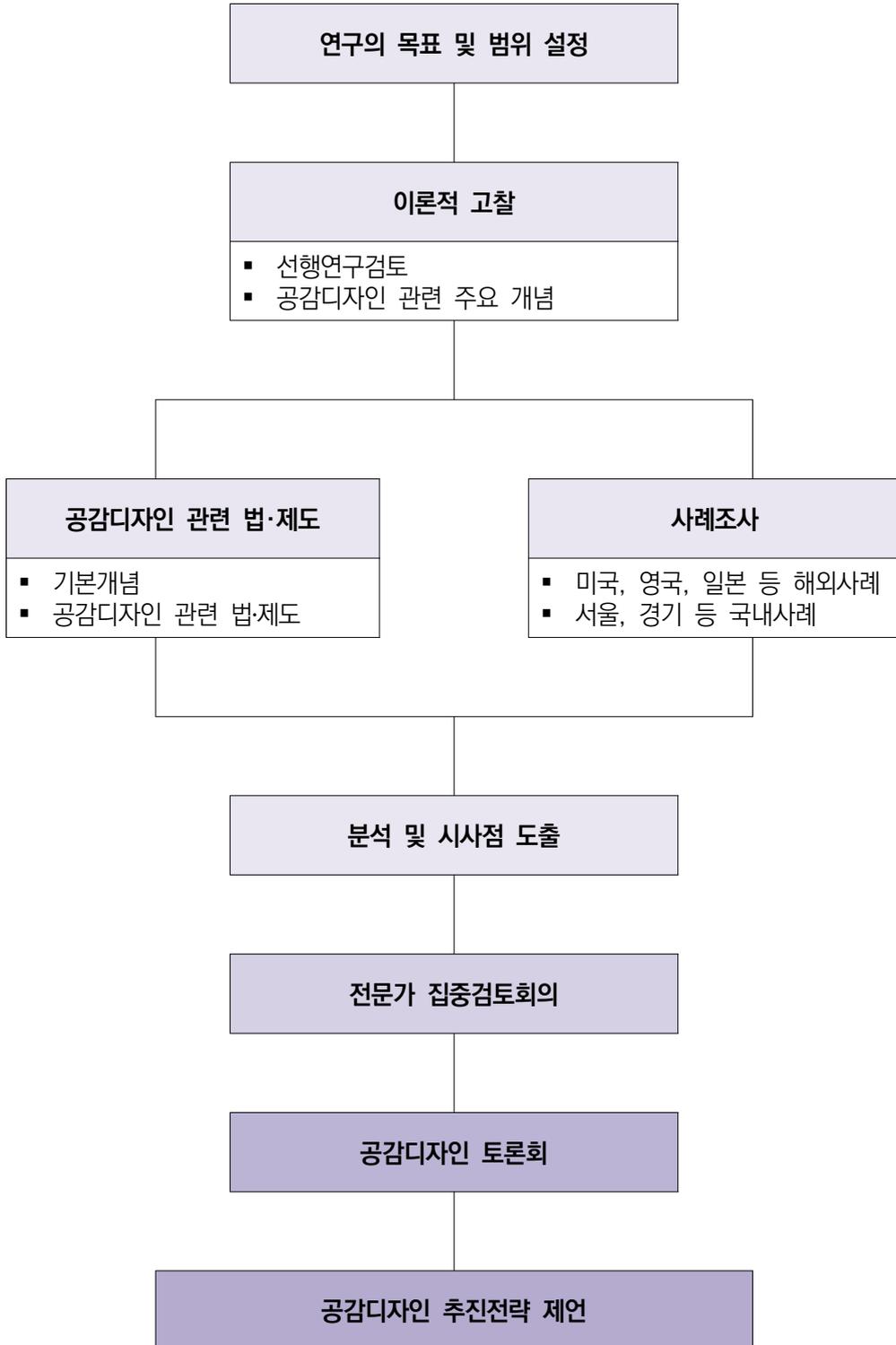
〈표 1-3〉 토론회 개요

토론회명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토론회
일 시	2018. 12. 05.(수) 13:30 ~ 16:30
장 소	더함파크 1층 대회의실
참 석 자	전문가 : 성기창 교수, 채완석 팀장
	수원시 공무원 : 18명
	수원시정연구원 : 21명
	기타 : 13명

〈그림 1-2〉 토론회 포스터



〈그림 1-3〉 연구의 방법



제3절 선행연구검토

- 공감디자인 관련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방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등에 주목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 최승철 외(2012)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 등의 근거 마련, 민관협력 체계 구축, 지속적인 사업추진 등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
- 이슬기 외(2017)는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황에 주목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
-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목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으며, 수원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수립을 위해 공감디자인을 정책 브랜드로서 제안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

〈표 1-4〉 공감디자인 관련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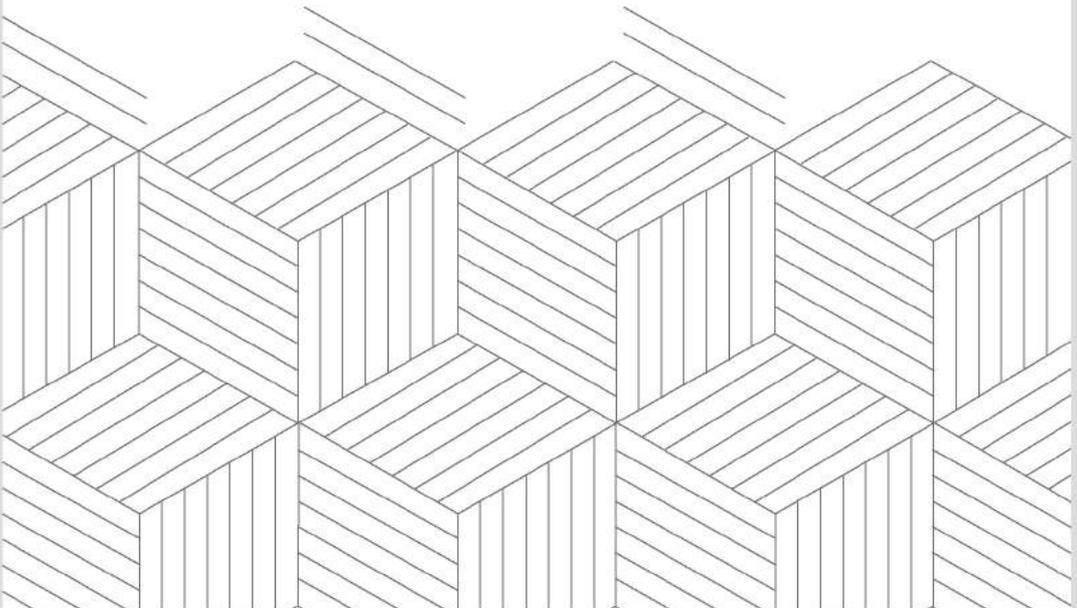
연구자	제 목	주요내용
문화관광 체육부 (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침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과제 도출 및 제안
서울시 (2017)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민이 배려되는 인간중심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한 유니버설 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수립 중
울산발전 연구원 (2015)	울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자인 전략을 모색 ▪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 민원실, 버스정류장 그리고 마을 단위의 노인정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안
서울 디자인재단 (2016)	2016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체계 및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아카이브 기준 필요성에 따라 DB 구축 시 필요한 기준체계를 만들고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 ▪ 정보 생산과 유통 및 관리 체계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표 1-5〉 공감디자인 관련 학술연구

연구자	제 목	주요내용
이용민 외 (2009)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 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결과물 221편을 수집하여 연구자가 정한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문헌 분석 개념의 도입 초기 연구는 공간디자인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연구내용은 디자인 적용성 평가나 사례 분석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이슬기 외 (2017)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화 현황 파악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조례는 목적, 범위, 적용 방법 등이 공통적이지만, 운영 방식, 계획 수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
김보애 외 (2014)	유니버설디자인 국외 연구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국외연구의 나라별, 학계별, 연도별 분포를 종합해 유니버설디자인 국외연구의 전반적 동향 파악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
유보현 (2009)	장애인지원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원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됨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장애인지원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 검토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
고영준 (2009)	일본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정책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즈오카, 구마모토의 UD 추진 정책과 적용 사례를 분석 지역사회 조성 사업 시 UD를 총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내·외부를 아우를 수 있는 추진 조직의 구성 및 마스터플랜에 의거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최승철 외 (2012)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조례가 없어 추진 동력이 부족하며, 민간 부분정책 확산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정비사업 추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등 근거 마련, 민관협력 체계 구축, 사업추진의 지속성 등이 필요
김보일 외 (2011)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그 본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
최길동 외 (2013)	도시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의 지원이나 환경디자인부문에 낙후된 지역인 진주의 거리를 선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부합된 사항들을 조사 사례조사를 토대로 고령화의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의 소도시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

제2장 공감디자인 여건분석

제1절 주요개념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제도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국내 법·조례



제2장 공감디자인 여건분석

제1절 주요개념

1. 공감디자인

1) 공감(共感)

-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 공감은 주로 영어의 Sympathy가 아닌 Empathy에 해당하는데, empathy라는 용어 사용은 미국의 심리학자 E. B 티치너(Titchener)가 독일의 미학자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의 Einfühlung(감정이입)을 영어로 empathy로 번역한 것이 그 기원
- 립스는 Einfühlung 개념을 '다른 사람이나 그의 행동들에 공명(resonance)하는 현상 또는 그것들을 내적 또는 심적(metal)으로 모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 티치너는 이 개념을 미학적 체험을 넘어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
- 이후 empathy로서의 공감은 심리학으로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일상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 혹은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¹⁾

〈그림 2-1〉 공감의 정의



[참여]

공감은

사회성의 핵심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소통]

공감은

타인의 주관적 세계를 인지하고 가치관 형성과정과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능력



[배려]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인지능력

1) 소병일(2014), 공감과 공감의 윤리적 확장에 관하여, 철학, 제118권, pp.197-225

2) 공감디자인

- 인간 중심의 배려하는 감정을 가지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감’을 기본적인 가치로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일치
- 공감디자인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
- 공감디자인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원시의 휴먼시티가 추구하는 인간중심 정신을 담고 있음

〈그림 2-2〉 공감디자인의 기본방향



-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결합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감이라는 행위를 포괄함
-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수원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브랜드로 설정

〈그림 2-3〉 공감디자인의 정의



2. 배리어프리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장애물 (barrier)을 없애기 위하여 (free) 특별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
-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하여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장애를 제거한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련한 문제를 고려
-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한계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해결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반 구성원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

〈그림 2-4〉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정의



자료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환경, 서비스, 건축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에서는 종종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디자인 포 올(Design for all)을 유니버설디자인 대신에 사용
- 영국의 셀윈 골드스미스(Selwyn Goldsmith)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념이 정립되었고, 미국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됨

4.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 및 국적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 처음부터 누구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의 접근방식(Design Process)을 의미
-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 1997년 미국건축가이자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의 소장이었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 현재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의가 완성
- 로널드 메이스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 및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라고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양하며,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며, 사회환경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생활에서의 제약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까지를 포함
- 법적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을 통해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에의 필요에서 출발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리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기술적인 측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

〈그림 2-5〉 Universal Design Plug



〈그림 2-6〉 un lavabos Tilting Sink



2)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실제 디자인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를 제시, 이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원칙은 단지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디자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 디자인 시 경제적, 공학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간, 제품, 환경 등에 실현하기 위한 것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기존 디자인 평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방향 선정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하기 편한 환경, 제품 등의 특성을 디자이너와 사용자를 교육하는데 활용 가능

〈표 2-1〉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리

4원리	내용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 어떠한 부담도 야기시키지 않음
수용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킴
접근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안전사고 등의 기존 문제를 제거시키기 위해 개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

〈그림 2-7〉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The 7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5. 인클루시브 디자인 (Inclusive Design)

-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
- 1980년대 노인층과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디자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디자인으로 장애물이 없는 디자인 개념을 건축물, 주변의 환경 등에 적용하여 시대적 흐름, 문화적 맥락에 맞게 지역성을 가미하며 진화
- 1994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인간공학회의에서 발표한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사례’의 개요 부분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
- 북유럽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미국·대만·일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영국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 모두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역사적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자인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는 동일
- 영국 CABE는 “좋은 공간디자인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배려하는 공간을 창조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일체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공간적 관점에서 포괄성이나 범용성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의미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설명
-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정신적, 시각적인 것을 주로 다루며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 시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확장된 범위의 디자인을 아우른다는 것이 특징

6. 종합

〈표 2-2〉 주요개념의 종합

구 분	배리어프리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 념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법규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가능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 방법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디자인의 의미로, 디자인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
대 상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범 위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제거	물리적 환경 및 행정·교육·복지 등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유니버설디자인의 범주에서 확장하여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디자인까지 포함
특 성	주로 장애를 제거한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뿐 만 아니라 경제성, 심미성, 친환경성까지 고려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을 가진 사회 소수 계층의 니즈를 파악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제도

1.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

-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²⁾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³⁾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⁴⁾
- 1970년대 북미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주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80년대부터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 차원에서 지역개발 및 도시건설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 전개
-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 및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도시에서의 여성의 삶’을 조명하였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시환경, 건설 등 도시 공간 부문에 대한 성별 고려 필요성 제기
-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이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격화, 2016년까지 총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정
- 2006년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07년 대구혁신도시계획,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광교신도시 등의 신도시개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

〈그림 2-8〉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그림 2-9〉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



2)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3)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4) 유희정(외3명)(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여성가족부

2.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y)

-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
-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가 아동과 협력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의 결의로부터 시작.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각 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 효율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운영
- 전국 29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현재 58개의 지자체에서 조성 중

〈그림 2-10〉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3. 고령친화도시 (Age-Friendly City)

- 고령친화도시란 노인 자신의 의사결정이 중요시되고 주체적 생활보장, 지역사회에서의 안심생활보장, 사회적 자원 접근·활용성 보장, 생활보장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Communities, GNAFCC)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 GNAFCC는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
-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의 형성과 노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중요시
- 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영역과 점검 항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이 가이드에 기초한 실행계획 수립이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에게 요구되는 주요 과업
- 이 과업에 따라 2010년 뉴욕시가 첫 회원이 되었고, 2017년까지 전 세계 37개 국가 541개 도시가 회원 가입. 회원도시 증가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정보 교류 활동도 더욱 활성화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3년 첫 회원으로 가입, 2015년 전라북도 정읍시, 2016년 경기도 수원시와 부산시, 2017년 제주도와 광주시 동구까지 총 6개 도시가 가입

〈그림 2-1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4.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s Assessment, HRIA)

- 인권영향평가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 등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을 의미
-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
-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인증 기준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평가
- 2012년 성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의 개념을 적용한 공공청사를 건립. 2015년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

〈그림 2-12〉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절차



〈그림 2-13〉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5. 종합

〈표 2-3〉 관련제도의 종합

구 분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인권영향평가
개 념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	아동권리를 지역 공공 정책에 반영하는 도시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정책 등이 인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주 체	여성가족부 (2009)	UNICEF (1996)	WHO의 GNAFCC (2006)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시행
추진방안	여성정책의 활성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WHO의 가이드에 기초하여 실행계획 수립	BF인증 기준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특 성	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제도	평가시스템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국내 법·조례

1. 관련 국내 법규

〈표 2-4〉 관련 제도의 종합

구 분	관 계 법 규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신항만건설촉진법 ▪ 공중화장시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기반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령, 고속국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유료도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중전화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정보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지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2. 중앙부처의 관련 법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
-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의무를 명시 (상세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의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준용)
- 시설물의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등

2)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시작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
-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
-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는 공원 및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였고, 도로 및 교통 관련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으로 이전
- 시행령은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 안내표시의 기준, 실태조사 실시 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행규칙은 대상시설, 설치계획 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해양부)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
-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어린이·임산부·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기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시켜 선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제정
- 보행자길 및 보행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보행하기가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및 정비하도록 규정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17조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제정
- 차량위주의 교통수단 및 시설의 설치에서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유도, 이동편의 시설의 단순 설치보다 전체적인 이동 동선의 확보가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BF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실시
- 인증 대상은 신규도시(구역), 건축물, 여객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에 교통수단, 도로, 기존도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인증효과로 인증 받은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약자안전 관련 검토 생략, 살기 좋은 도시 및 도시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분양가 산정 시 공사 비용 추가 인정 등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안안전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제정
- 초등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등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명시
- 보호구역 내에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기준 및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를 명시
-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면도로를 일반통행로로 지정·운영, 안전표지 설치 등의 조치 가능

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 이 중 사회적 가치창출이 포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은 아니며, 2014년 약 6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
- 공공기관은 정책·사업·업무 등의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 조직정비, 필요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의미

〈표 2-5〉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지방자치단체 조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라북도,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인증제를 포함한 경우가 있음

〈표 2-6〉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구 분	목적	계획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디자인 인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 조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공공시설 외 시설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업 진행 시 심의를 통해 일부 비용 지원 가능	도시디자인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위임 가능	신청이 있을 때 디자인 인증을 실시, 사업시행 시 인증을 권장
경기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시범사업은 재량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음	X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관련 사항 심의 진행)	신청이 있을 때 디자인 인증을 실시, 사업시행 시 인증을 권장
대전시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조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실행계획 수립은 재량	사업의 추진 및 비용 지원이 모두 가능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위임 가능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설정 및 운영 가능
부산시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실행계획 수립은 재량	재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가능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위임 가능	X
전라북도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기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역시 5년마다 검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경관위원회에 관한 위임 가능하며, 서면 의결 가능	X
제주도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조성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실행계획 수립은 재량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건축위원회, 공동 위원회 등 타위원회에 관한 위임 가능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설정 및 운영 가능

2)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서울시 2개구, 경기도 3개시, 충남, 대전 등 7개 지역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근거,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은 관련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디자인 인증 제도를 포함한 경우는 없음

〈표 2-7〉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구 분	목적	계획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디자인 인증
용인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시범사업 지정 및 시행 가능	공공디자인위원회 권한 위임 가능	X
화성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시범사업 지정 및 시행 가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권한 위임 가능	X
의정부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수립 및 재정비 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계획 포함	시범사업 지정 및 시행 가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권한 위임 가능	X
천안시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수립 및 재정비 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계획 포함	지원에 대한 언급 X	설치·운영 가능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같음 할 수 있음)	X
대전광역시 동구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종합적·연차적 추진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주민 이용시설에 기술적 지원 및 일정부분 예산 지원 가능	설치·운영 가능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같음 할 수 있음)	X
서울시 도봉구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사회복지시설·주민 이용시설에 기술적 지원 및 일정부분 예산 지원 가능	도봉구 디자인위원회에 권한 위임 가능	X
서울시 은평구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지원에 대한 언급 X	은평구 디자인위원회에 권한 위임 가능	X

4. 종합

1) 중앙부처의 관련 법규

- 사용자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치수 중심으로 기준을 규정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애 제거에 중점
-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 기준 마련이 시급, 대상범위 확대 필요
- 물리적 장애 제거 외에도 쾌적성, 편리성 및 지역성 등에 관한 고려 필요
- 6개의 광역지자체, 7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 수준의 법률은 미비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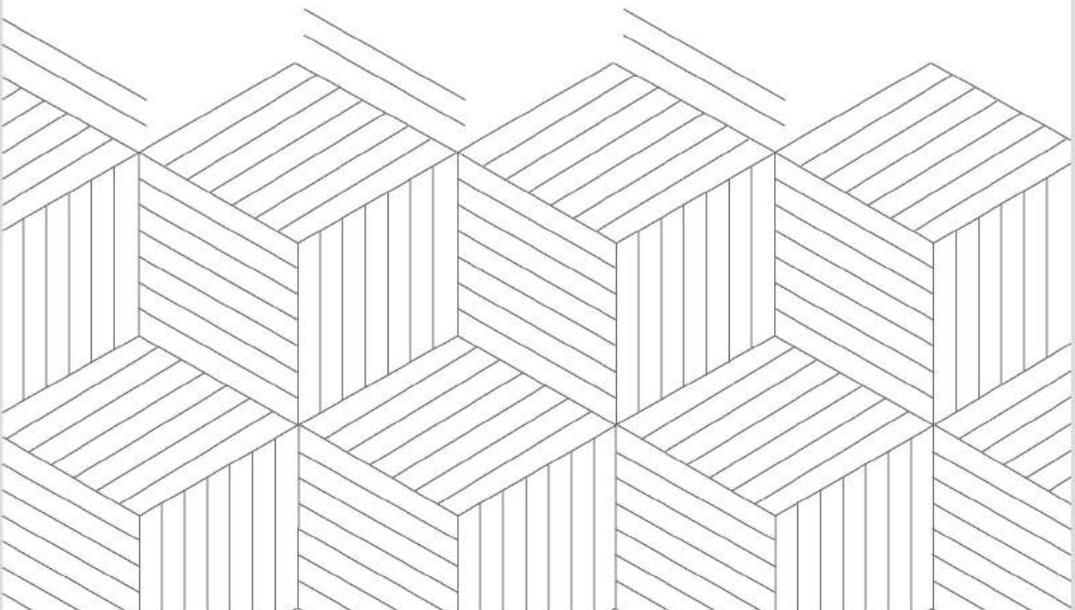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자체 모두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환경 자체 또는 환경을 만드는 수단, 디자인 행위 그 자체로 이해
- 광역지자체에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공통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계획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남
- 기초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광역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각 지자체 조례 별 특이점을 보면,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주도는 계획 수립 시 시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
-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운영 중
- 서울시가 가장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구축. 대전은 도시디자인 내에서 UD의 방향을 통합하여 정리하였으며, 경기도는 통합 가이드라인 1종으로 5개 관련 영역에 활용
- 관련 인증제도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와 관련 사업을 담당
- 2016년까지 14개지자체와 2개의 지방교육청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제3장

공감디자인 사례

- 제1절 사례조사의 틀
- 제2절 해외사례조사
- 제3절 국내사례조사
- 제4절 사례조사의 종합



제3장 공감디자인 사례

제1절 사례조사의 틀

1. 사례선정 기준

1) 해외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확산 지역으로 미국을 사례로 선정
-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정립한 지역인 영국을 사례로 선정
-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사례(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인 노르웨이를 사례로 선정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부문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을 사례로 선정

2) 국내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의 변용 측면 조사를 위해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
- 수원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사례로 선정

2. 조사내용의 구성

〈표 3-1〉 사례조사 항목

구 분	내 용
공감디자인 관련 동향	사례조사 대상 지역에서의 공감디자인 관련 동향 조사
공감디자인 관련 정책	공감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행동계획 등 관련 정책의 수립 여부
공감디자인 관련 법·제도	관련 법, 지자체의 조례, 지침 및 조직구성 등
공감디자인 관련 사업	공감디자인 관련 물리적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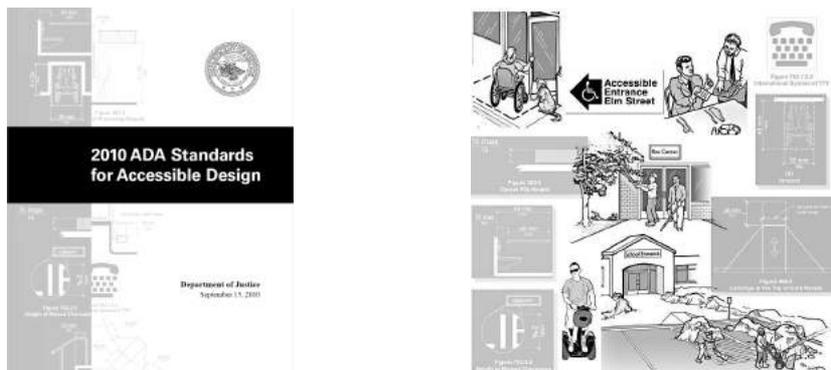
제2절 해외사례조사

1. 미국

1) 동향

- 1961년 미국표준협회에서 무장애 건축물을 위한 국가 표준을 수립하여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 많은 주정부에서 건축법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
- 1968년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서 신체장애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
- 1973년 재활법에 내재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포함, 이후 교육, 시설물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에 확대 적용
- 1990년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교통, 통신, 고용 등 사회적 영역에서 기회 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가 인간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확산
- 2010년에는 IT제품과 서비스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률 등이 제정. 또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
-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인권회복을 위한 법규 제정, 주택-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물 제거, 재활을 돕는 재활공학과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
-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특성상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미국의 연구는 재활공학 등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연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림 3-1〉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2) 정책

- 1990년 시카고 시장인 리차드 데일리(Richard M. Daley)는 시카고에 거주 중인 약 60만 명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MOPD(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설립
- 시카고를 미국 도시 중 장애인이 모든 기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MOPD의 목표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동등한 권리의 획득과 참여,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등을 추구
- MOPD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을 이해시키고,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제정에 동의,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
- MOPD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Architectural Services, Disability Resources&Services, Employment Services, Training Services, Youth Services 로 이루어진 5개의 조직에서 수행
- 이 조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 직속 기구인 태스크포스팀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태스크포스팀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을 위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MOPD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시작
- MOPD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①법규 제정을 통한 주택 및 환경개량사업, ②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재활, 훈련 프로그램 등의 시행, ③ 주택, 취업, 교육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 ④ 직접적인 서비스와 지원 제공, ⑤ 취업 관련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시행, ⑥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그림 3-2〉 MOPD Access Chicago



3) 법·제도

(1)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ADA)

- 재활법에서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제정
-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 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등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 및 소극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
- 주법(州法)보다 엄격한 연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공공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행과 이동, 물품의 구입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2) 건축장애물법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장애인을 고려하여 직장 내 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한, 장애인의 이용시설물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1968년 제정
- 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용하여 설계, 건축, 개축 등이 이루어지거나 연방정부의 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3)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 1973년 제정된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평등법으로 장애를 이유로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관공서나 국공립대학, 기타 기관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개인을 위해 개별화 재활 계획(Individualized Written Rehabilitation Plan, IWRP)을 개발할 것을 요구
- 고용 가능성은 약하지만 자립 생활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재활 전문가의 훈련 기회 확대를 규정하였고, 민간 및 관공서에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평등 기회 실현, 건축 및 교통 장벽 철폐, 연방 공무원 채용 시 차별금지 등을 규정
- 직업 환경과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을 요청하는 명령과 지시를 포함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

(4) 공정주거개정법 (Fair Housing Amendments Act, FHAA)

- 정부지원 여하를 불문하고 공공 및 민간주택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4 가구 혹은 그 이상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제정
- 이 법은 1991년 이후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
- 공동주택 개발 시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접근 및 사용 가능한 공동 공간,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있는 조명스위치 등의 7가지 설계·시공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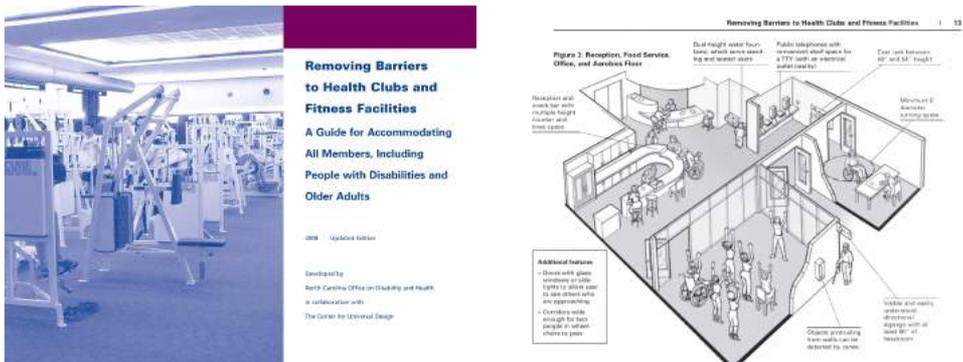
(5) ANSI A117.1-2009

-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규격(standard for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으로, 1961년에 제정하여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및 운영
- 미국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국가 법령인 FHA(Fair Housing Act), ABA(Architectural Barriers Act), ADA등과 연동하여 운영 (각 법령별로 법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지침을 두고 있음)

(6)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 노스캐롤라이나 장애보건사무소(North Carolina Office on Disability and Health) 와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협력하여 제작한 가이드로, ADA에 의거하여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
- 헬스클럽 및 체육시설 관련 ADA 가이드에는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편의점 내 낮은 카운터,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공간, 접근하기 쉬운 라커 및 탈의실, 휠체어 사용자가 움직이기 쉬운 화장실, 의자를 갖춘 샤워실 등이 포함

〈그림 3-3〉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4) 사업

(1) Access Living

- 1980년 시카고재활연구소에서 재활훈련을 마친 환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적합한 시설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설립
- 2003년 사옥 건립을 위해 'The Campaign to Build a Permanent Home for Access Living' 캠페인을 시작, 2007년 시카고 West Chicago Avenue에 입주
- Access Living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가치 있고 독립적 삶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합된 사회를 실현하는 것
- 사용자 요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한 건축적 아이디어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국가적 모델로 대표되고 있음
-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카고 대중교통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카고 및 미국 내의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주택 구입 및 임대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Fair Housing Testing Program 도입 등 꾸준한 지원 사업을 추진

(2) Wesleyan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 1831년 설립된 대학 내 두 개의 역사적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연장 내외부를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 사이에 투명한 건물을 지어서 건물들을 연결하고 로비, 관객서비스 공간,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연단까지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
- 이동약자들을 위하여 'know before you go' 대학 캠퍼스 맵도 제공

〈그림 3-4〉 Access Living



〈그림 3-5〉 Wesleyan University Arts Center



2. 영국

1) 동향

- 영국은 1970년대부터 장애인단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민권(Civil Rights for Disabled People)을 갖기 위한 운동이 전개
- 1979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제에 대처하는 위원회(Committee On Restrictions Against Disabled People, CORAD)를 설립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집행기구의 설립 등을 요구
- 1995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이 증가
- 2004년부터 London Plan 내 ‘Accessible London’을 주제로 관련 제도 정비를 실행하고 있으며, 공공혁신 프로젝트인 ‘RED’, ‘Dott07’ 시행 및 ‘Design for London’ 프로젝트를 추진
- 2009년부터는 개정 평등법을 기반으로 ‘Equal Life Chances for All’이라는 비전을 선언,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도를 정비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에서 디자인 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사회 현안의 해결을 위해 디자인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적용
- 영국의 인클루시브디자인은 인지적, 문화적 제약을 가진 사회 소수 계층의 니즈를 파악

〈그림 3-6〉 Design for London



2) 정책

- 2000년 설립된 대런던 행정청(Great London Authority, GLA)의 대런던 행정청법 (Great London Authority Act)에서는 런던시장이 런던의 개발계획인 런던 플랜 (London Plan)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2016년까지의 런던 개발전략 을 담은 런던 플랜을 2004년에 발표
- 런던시장은 런던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담고 국가의 도시 계획정책을 토대로 런던플랜을 작성해야 함
-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목표는 ①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파괴하지 않는 내에서의 성장 지향, ②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 ③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도시, ④ 빈곤과 차별 없는 사회적 화합을 꾀하는 도시, ⑤ 접근이 용이한 도시, ⑥ 높은 수준으로 디자인된 매력적인 녹색 도시
- 런던 플랜 내 Accessible London을 주제로 한 제도 정비를 실행하고 있는데, 영국 평등법을 기반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와 접근 가능한 사회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
- 2009년부터 새로운 비전인 ‘Equal Life Chances for All’을 통해 기존의 런던 플랜 내 기준과 연계하여 생활환경, 서비스 등의 분야까지 확대 추진 중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침 규정,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분야별 통합세부 가이드라인 작성, 평등을 개념으로 교육·복지·정보·취업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대런던 행정청에 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 및 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 환경개선 관련 세부적 제도와 기준은 런던 플랜 내 인클루시브 디자인 원칙에 명시

〈그림 3-7〉 Accessible London



3) 법·제도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DDA)

- 1993년 ‘시민(장애인)권 법안(Civil Rights (Disabled Person) Bill)’이 입법으로 제출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고, 1995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
- 1995년 DDA에 의해 국가장애위원회(The National Disability Council)가 설립되었으나 기본적 자문 기능만 갖고 있고, 개인을 지원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
- 2000년 국가장애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DRC)를 설립
- DDA에서 장애를 ‘정상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
- DDA에서 차별이란 고용, 교육,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또는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합리적 배려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의 직접적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간접적 차별 등이 포함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2000년에 제정된 EU의 고용 평등 기본 지침 (Directive 2000/78/EC)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고, 2010년 평등법의 일부분으로 포함

(2) 평등법 (the Equality Act)

- 2010년 이전까지 영국의 차별 금지법은 성차별 금지법, 인종차별 금지법, 동등임금법, 장애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각각의 차별 금지 사유마다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체계
- 2010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관련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평등법이 개정하고, 그 동안의 차별 금지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권, 연령, 종교,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의 차별을 금지
- 차별 금지사항을 보면 2장은 고용, 3장은 재화,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4장은 교육, 5장은 대중교통, 6장은 국가장애위원회에 관해 규정
- 평등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축 기준 (Building Regulations 2010)과 관련 상세 기준인 BS:8300이 있음
- 정부차원에서 Planning Policy Statements and Guidance, the Building regulations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 (DDA) 등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물리적으로 제약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

4) 사업

(1) Independence Matters

- 2011년 영국 디자인협회의와 기술전략이사회가 개발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보조금 없이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개발
-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생리적, 사회-정신적 안녕에 초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IT 융합 디자인 기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보된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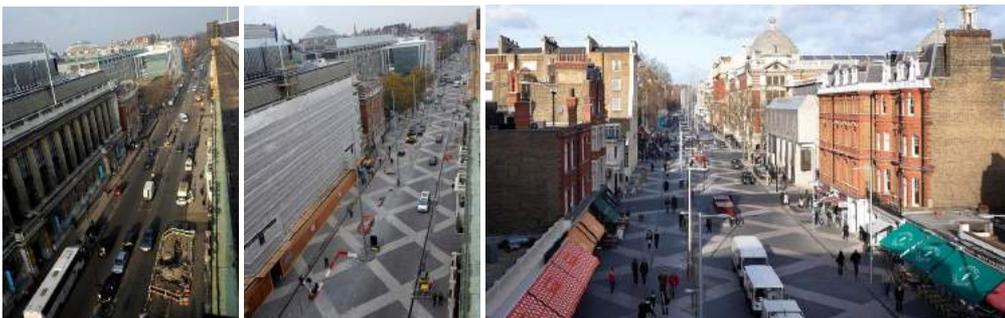
(2) Inclusive Design Challenge

- 2000년부터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24시간, 48시간 단위의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
-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 제작 방법론 및 기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워크숍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12개국에 1200명 이상이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P&G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디자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3) Britain's longest clutter-free street

- 신호등이나 표지판, 도로경계석 등을 제거해 인도와 차도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리
- 사우스 켄싱턴 역에서 하이드파크까지 820미터의 길이로, 평평한 표면으로 설계되어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
- 차량의 속도 제한을 20mph 이하로 낮춰 보행자의 이동성을 향상시켰고,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제거하여 운전자가 더욱 조심하게 되어 사고율 역시 감소

〈그림 3-8〉 Britain's longest clutter-free street



(4) Direct Enquires

- 특정 공간이나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 좋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로 2003년 설립
-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무료 제공
- 접근성이 좋은 호텔, 헬스장, 화장실, 지하철, 식당, 관광지, 교통수단 정보 등을 제공
-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접근성에 대한 정보 등록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수입을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원

(5) 런던버스

- 런던의 빨간버스는 1954년 처음 등장. 창문이 넓어 채광이 잘되고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로 디자인
- 출입문 중 한 곳은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하여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 가능하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부공간을 넉넉하게 이용 가능

(6)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 2005년 맨체스터 아트갤러리는 건축물의 노화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따라 공간을 디자인
- 건축물의 외벽, 여러 색상의 현수막, 보기 힘든 위치에 설치된 안내판과 작품 설명서,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 운영 등에서 불편 요소를 도출
-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선과 공간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안내 체계를 도입
- 흰색으로 통일한 내·외부의 안내 체계로 방문객들이 미술관을 쉽게 관람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간을 개선

〈그림 3-9〉 런던버스



〈그림 3-10〉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3. 노르웨이

1) 동향

- 1996년 노르웨이 델타센터(Delta Centre, National Resource Centre for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UD 관련 자문, 교육 및 연구 개발, 평가 업무 등 진행
- 2005년 1차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을 수립, 2009년 2차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매년 새로운 계획 수립·수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법·제도의 강화 및 개선이 진행 중
- 2006년 노르웨이 델타센터 및 환경성 관련 단체에 의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초안을 작성, 이를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재검토하여 환경성에서 'Planning and Building Act (계획 및 건설법)'와 그 부속 규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의 향후 발전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밝히고 그 개념을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전략으로 연령, 기능, 능력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과 제품 등을 새로운 기술, 지식, 정보 등을 이용, 보다 좋은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
- 2009년 '차별금지 및 접근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
- 2009년 'National Transport Plan 2010-2019'을 발표하여, 교통수단 이용 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4년마다 계획 수립
- 장애인·노인·여성 등의 사용자의 직접 참여와 각 분야별 전문기관 및 연구소의 참여,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의회와 시민 참여 및 접근성에 관련된 정부조직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 그룹도 운영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업을 추진

〈그림 3-11〉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그림 3-12〉 노르웨이 델타센터



2) 정책

(1)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 2025년까지 모든 건물, 대중교통, ICT 등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유니버설하게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행동계획
- 제1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2009~2013)의 4대 우선순위 분야는 건물 및 구조물, 기획 및 야외 영역, 교통, 정보통신기술 (ICT)
- 이에 반해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2015-2019)에서는 우선순위를 모두 기술 관련 분야로 정하였는데, 정보통신기술 (ICT)과 복지기술 (Welfare technology) 및 일상생활 기술(Everyday technology)이 우선순위.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외에 건물 및 구조물, 기획 및 야외영역, 교통은 기타분야로 분류
- 제2차 행동계획에는 ICT분야에서 14개 조치 사항을 비롯하여, 복지기술 및 일상생활 기술에서 4개, 건물 및 구조물 9개, 기획 및 야외영역 8개, 교통분야 7개, 그리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5개 사항을 명시. 또한 각 사항마다 소관부처도 함께 명시
- 노르웨이 아동평등부가 주체가 되어 16개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걸쳐 건축, 교통, 야외공간계획,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 향후 국가 및 지방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 관리 및 신규 시설 건립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

(2)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각, 청각, 인지장애와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민감한 사람(천식과 알레르기환자) 등과 같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포커스
- 건물, 외부 환경, 제품 및 사회의 그 밖의 다른 중요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일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15개 다른 부서의 후원 하에 마련
- 이 행동계획의 토대가 되는 5개의 원칙은 ①사회 모든 주요 분야를 포함, ②영역 책임 원칙에 근거한 것, ③정부 정책들은 조정이 될 것, ④행동계획 관련 노력들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 ⑤대책들과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될 것
- 이 행동계획은 대학, 직업학교의 교육 관련 몇몇 행동계획에 이미 적용한 바 있듯 정부 정책과 행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

3) 법·제도

(1) 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장애인이 상품, 정보 등에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용주는 기능 장애와 상관없이 평등을 보장하고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NS 11010

- NS 11010은 델타센터에서 개발한 접근가능한 관광지를 위한 표준으로, 관광 접근성을 위한 노르웨이 라벨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14개 영역에서 107가지 요구사항을 포함
- Standards Norway에 따라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라 인프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몇 가지 독립 실행형 표준을 설정
- 이 표준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접근성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

4) 사업 : The Stovner Tower

- 오슬로 Jesperudjordet 공원 중심에 위치한 타워로,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
- 260m길이의 타워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을 위해 꼭대기까지 평평한 경사로를 설치
- 경사로 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공간 및 벤치를 배치
-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일과 조명을 외부환경과 대조적으로 설치

〈그림 3-13〉 The Stovner Tower



4. 일본

1) 동향

- 1949년 신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배려가 시작, 1970년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으로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장애인의 고려가 시작
- 1970년대부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마을 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
- 1973년부터 1975년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로서 53개 도시를 지정하고, 1979년부터 1985년 ‘장애인 복지 도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156개 시·구를 지정
- 1975년 장애인복지법에 신체장애인, 병약자, 노인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지침 지정
- 1978년 장애인 가정에 경비보조와 용자제도 도입
- 1986년 ‘장애인이 살기 좋은 거리만들기 사업’으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76개 시·구를 지정. 이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도로·교통 안전시설, 주택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실시, 심신장애아동 조기교육 추진 및 시민 계발 네 가지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
- 1990년부터 실시한 ‘살기 좋은 복지마을 사업’으로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 이 사업은 ‘고령화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사업의 하나
- 1988년 건설백서에 노인과 장애인 주거시설에 드는 추가공사비에 정부보조, 주택금융 우대조치 등을 실시
- 1990년 도입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정보처리기기의 어세서빌리티(Accessibility) 지침을 시작으로 건축물 사용 편의를 위한 하트빌딩법, 제품 안정성 제고를 위한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배리어프리법이 제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e-Japan, u-Japan 프로그램 등을 추진
- 1994년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친근한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약 2~3개월 진행되는 단기사업으로, 예산 등의 문제로 실제적인 설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2007년 세타가야구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에현 하마마쓰시, 동경 히노시, 교토시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
- 법의 시행효력에 있어 강제성이 강한 미국의 ADA법에 비해 강제성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차이점으로 노력, 의무라는 언급 정도로 되어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건축주에 좌우
- 신체적 특성과 장애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쉬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공용품(共用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공용서비스나 공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구체화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보급이 진행

2) 정책

(1) 배리어프리 마을 만들기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당사자가 직접 점검 및 조사를 시행
- 조사를 반영한 배리어프리 마을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이와 동시에 필요한 기존 공공시설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배리어프리화된 시설 등을 제공하고 배리어프리 마을조성 정비를 추구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UD시티'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직면하는 초고령사회의 진전과 방일 외국인 증가 등의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비전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UD 시티" 제안
- 사용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도 시야에 넣은 “시장 대화형 모노 코트 만들기”의 산관학 연계를 추진하고, 외국인 방문객 2000만 대상의 민관이 다양한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를 일본 전국에 제공

(3)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사업

- 누구라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촉진·보급을 위하여 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NPO, 그 외 사업 등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
- 2011년 유니버설 투어리즘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사를 실시, 여행서비스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관계자 전체에게 보급·공유를 계획하기 위해 과제 정리
- 2012년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지역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책을 조사하고 타 지역에서 참고가 되는 정책을 검토하며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관계자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유니버설 투어리즘을 더욱 촉진

〈그림 3-14〉 치바현 유니버설투어리즘 사례집



3) 법·제도

(1) 하트빌딩법(Heart Building)

- 고령자·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촉진법으로 1994년 제정 되었는데, 이 법으로 인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건축물 적용 및 관련 지원제도 등이 확대
- 건축물 범위확대, 기준 적합의무 규정, 규모변경, 지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2003년 개정 시행

(2) 배리어프리법

-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비롯된 ‘고령자·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82년 장애자대책에 관한 장기계획 이후, 1993년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계획 전략이 정비
- 2002년에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본방향을 책정
-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트빌딩법과 교통 배리어 프리법을 통합하여 2006년 배리어프리신법을 시행
- 배리어프리신법은 2005년 발표된 유니버설디자인정책 대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배리어프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유니버설한 사회 실현이 목표

(3) 교통 배리어프리법

- 고령자·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 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미국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0년 제정. 여객 시설을 중심으로 시나 구가 만든 기본구상에 따라 배리어프리화를 중점적, 일체적으로 추진
- 2006년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반영

(4) 유니버설디자인정책 대강

- 국토교통성이 2005년 발표한 정책 대강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생활 환경과 연속적인 이동환경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기본 개념과 10가지의 정책을 제시
- 10가지 정책 중 하나는 ‘마음의 배리어 프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기 위한 정책

4) 구마모토

- 구마모토는 일본 지자체 중에서도 노인의 비율이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편으로, 구마모토는 2000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추진
- 구마모토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목표는 ‘누구든 살기 편리하고 풍요로운 구마모토’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공간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계몽활동 및 인재육성,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등의 활동 진행
- 2002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조직 및 파트너십·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를 구성
- 2004년 제정된 하트빌딩법으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행정운영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각종 시책을 강화
-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건축, 주택, 시각정보사인, 도로 등에 대한 설계방법, 평가 기준 등을 제공

(1) 추진원칙

- 구마모토는 모든 지역사회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프로세스 중시라는 원칙과 4가지의 시점으로 정해놓았음
- 프로세스 중시의 원칙은 각 추진사항을 종합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와 의견을 철저히 파악하는 사용자 지향적 정책을 수행
- 또한 효율적인 디자인 및 사후평가를 위해 이용자와 제작자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개선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시
- 4가지 시점은 ‘모든 사람에게 간단’, ‘모든 사람에게 쾌적’, ‘모든 사람에게 안전’, ‘모든 사람과 상황에 유연’으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토대로 만든 것

(2) 추진방향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향은 마을만들기, 제품 만들기, 정보·서비스 만들기, 의식만들기
- 마을 만들기 안에는 공공시설·건축물, 교통기관·시설, 도로, 주거·상업·휴게공간 등이 포함되며, 제품만들기에는 물건을 포함한 물건의 생산으로부터 유통·보급까지를 포함
- 정보·서비스 만들기에는 정보전달, 서비스, 취업환경이 포함되며 의식만들기는 보급, 계몽활동, 인재육성 등을 포함

(3) 추진체제

- 구마모토현 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직은 종합정책국 기획추진실과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 추진위원회로 구성. 추진위원회는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02년 ‘파트너십·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PS·UD 추진위원회)’로 설치
- PS·UD 추진위원회는 지사, 부지사, 각 부서의 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정, 평가, 실시 역할을 위해 파트너십·유니버설디자인 추진원이라는 실무 추진 체계도 구성하여 각 지역 진흥국에 배치
- 지역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개발 중. 진흥지침과 ‘구마모토 유니버설디자인 여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 UD 건축가이드라인, 기존 건축물 UD 평가 매뉴얼, 기존 건축물 시각정보, 사인 개선 매뉴얼 등을 개발

(4) 특징

- 사용자의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로 설정
- 4가지 시점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제작
- 친화적 마을 만들기 조례 등과 같이 시민에게 친근한 용어를 활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칭을 대체
- 안내사인과 규제사인 등의 시각정보 사인개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내사인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그림 3-15〉 구마모토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팸플릿



(5) 사업

① 대화에 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정비 촉진 사업

- 설계 초기 단계에 유니버설디자인 배려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조언해주기 위해 실시
- 장벽제거신법 및 쉬운 지역개발 조례에 시설물 설계 및 시공 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놓고 있지만, 비용·시간의 제한, 복잡한 과정 등으로 사전 의견 청취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2006년부터 사업 시작
-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장벽제거법(하트빌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시점에서의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도면이나 현장을 확인 후 조언

②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물 정비 촉진 사업(UD 보조사업)

- 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사 진행 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장벽제거법, 구마모토현 지역개발 조례의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200만엔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이 되는 공사는 휠체어사용자·노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워지도록 자동문·경사·난간의 설치 및 다기능 화장실이나 주차장의 정비 등

③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 지역개발을 추진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을 실제로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을 제작
- 현청(장애인지원과)이나 가까운 지역 진흥국 보건 복지 환경부 총무기획과(보건소)에서 대여 가능하며,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하나의 가방 안에 정리해 학습 및 지역 이벤트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
- 대출 비용은 무료이며, 고령자 유사 체험 키트, 전시 패널 등도 대출 가능

〈그림 3-16〉 UD 보조사업



〈그림 3-17〉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④ 외출안심 화장실 사업

- 누구나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자 외에도 이용 가능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외출 안심 화장실 사업 시행
- 공공시설이나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협력 시설을 모집하여, 2012년부터 등록을 완료한 시설의 정보를 현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신
- 2011년 책정한 “쉬운 지역개발 추진 계획”의 6개의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
- 대상시설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서 휠체어 대응, 오스트 메이트 대응, 기저귀 교환대 부착 중에서 하나의 기능이 있는 화장실로, 시설 이용자 외에도 해당 화장실을 이용 가능한 시설이 대상 시설
- 사업 등록을 완료한 시설의 정보는 구마모토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비에 관한 기본 정보로 위치, 이용시간, 정기 휴일,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
- 수유실, 등반이 쿠션, 개호용 커튼과 같은 설비의 유무 등의 상세 정보도 제공

⑤ 하트 플 패스 우선 주차장 제도

- 2014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 주차장 제도로, 장애인주차장만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보행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협력시설의 출입구 근처에 있는 일반주차장을 개선
-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휠체어 사용자 등) 외 이용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위해 주차장을 통상 폭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자 전체의 편리성 증대
- 시설 출입구 부근 일반주차장을 하트 플 패스 이용자의 전용공간이 아닌 일반 이용자의 배려에 의해 비워 주는 우선적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주차 공간의 증가를 도모
- 대출 비용은 무료이며, 고령자 유사 체험 키트, 전시 패널 등도 대출 가능

〈그림 3-18〉 외출 안심 화장실 사업



〈그림 3-19〉 하트 플 우선 주차장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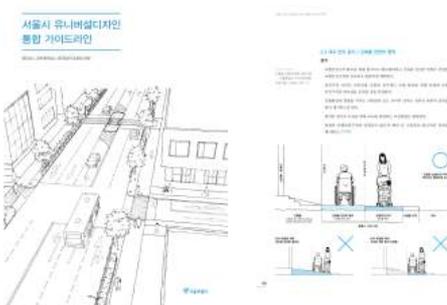
제3절 국내사례조사

1. 서울

1) 동향

- 2006년 디자인 조례 제정 및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 2007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출범으로 디자인 사업이 본격화, 도시경쟁력 향상 등이 주요 정책과제
- 2012년 공공시설물 등 경관과 관련된 도시디자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활용품 활용, 업사이클 디자인, 복지시설 디자인개선,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 편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중점
- 2013년부터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시작. 범죄예방디자인안전마을, 스파이더범죄예방 마을,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으로 안전한 등굣길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을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함께 추진
- 2014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증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및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또한 24종의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장애물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복지시설 UD컨설팅 프로세스 북 등을 제작·배포하여,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활용
-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을 대상으로 무장애공원 조성사업 및 산책로 등을 무장애화 하고,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도시환경 전반의 UD화를 목표로 체계적·단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그림 3-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3-21〉 범죄예방디자인안전마을



2) 정책

-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아동안심길 디자인, 치매대응힐링 디자인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을 지속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이란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고령화, 범죄, 학교폭력, 치매 등)를 분석하여 디자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의미
- 행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도시를 세련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형태디자인에서 시민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행태의 디자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
- 서울시는 2017년 이와 같이 서울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화.
- 서울시는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지만, 조례에 따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단계별·부문별로 체계적으로 추진
- 적용범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위험예방을 위한 디자인,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정서적 안정감 증진을 위한 디자인, 공공행정의 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사회복지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그 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디자인 등 7가지로 규정

〈그림 3-2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3) 법·제도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하여 시행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감독, 특별교통수단 운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진행
-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매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 서울시는 편의증진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하는 독립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 심사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은 서울 지역의 민간 시설물과 그 외 인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소유자, 시공사 또는 관리자가 신청 가능
- 신청시기는 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시설물도 신청 가능
- 민간시설의 인증 환산을 추진하기 위해 ‘1차지구 1무장애’ 민간시설 시범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취득가능 대상 건축물을 선정, 구별 시범 추진
- 정부의 BF인증제도가 인증등급이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서울형 무장애 시설물이라는 단일등급으로 진행되며, 인증수수료는 무료

〈그림 3-2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배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기타	· 출입문 측면에 매장형 점자표지판을 설치	
	· 매장 내 통로는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추가



4) 사업

(1)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이란 학생들이 고령화장애로 인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9월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첫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본격적으로 운영
- 2016년 12월부터 외부전문가,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교사용 교육지침서를 개발, 담임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연수 진행
- 2015년 25개교, 2016년 40개교에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전문 교육업체가 찾아가는 일회성 교육방식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정규교육으로 확대 편성
- 대상은 교육청에 신청한 40개교(120학급) 초등학교 4학년 약 3,000명으로, 서울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사고가 가장 유연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교육 대상으로 선정

(2) 서울도서관

- 서울도서관은 지상 1~4층, 지하 3~4층 규모의 도서관으로, 일반자료실 외에도 점자 도서, 촉각도서 등 1110종의 대체자료가 구비된 장애인자료실을 마련
- 장애인자료실 내에는 독서확대기, 점자키보드 등 보조기기를 비치해 지식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노인, 난독환자 등 독서 장애인들도 책을 가까이서 접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
-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각장애인 전용 PC와 대면 낭독실과 수화 영상실이 있어 이용자들의 독서편의에 도움

〈그림 3-24〉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그림 3-25〉 서울도서관



2. 경기

1) 동향

- 2013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 수준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도의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음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유지하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
- 2015년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공공건축물 및 교육시설의 경우, 국가 인증인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제품 영역에 대한 것도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운영 중에 있으며, 안내사인 및 정보영역도 적용의 범주

〈그림 3-26〉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 법·제도

(1)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경기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노인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8년 제정
- 이 조례에 의거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의미하며, 관련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이 조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가능

(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사전·사후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

3) 사업

(1) 알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교재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교재 개발

〈그림 3-27〉 알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교재



(2) 오감으로 느끼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 경기도 창의·인성 교육 나눔 박람회 기간 체험 교육을 위한 전시관 운영

〈그림 3-28〉 오감으로 느끼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3)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이면도로 등 보호구역 외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을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디자인 개발’을 2014년 개발, 보차 분리, 보도펜스 설치, 출입구 분리, 장애학생 편의시설, 블라드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5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총 1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2019년은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대상 확대
- 2016년 광주시 도곡초등학교 통학로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보도와 차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교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학원차량 정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차량과 어린이의 동선을 분리,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 2018년 경기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72.8%가 접근성과 보행 환경의 안정성이 좋아졌으며,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족

〈그림 3-29〉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4)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체험교육

- 경기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
- 세부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 심화교육 1회,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 운영 24회,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1회 등으로 구성
- 심화교육은 시·군 공공 디자인 담당자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 처음 실시된 과정으로, 22개 시·군 담당자 43명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선진국 사례 학습 등으로 진행

(5) 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

- 성남시 산성동 복지관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경기도의 첫 사례로, 경기도에서는 2014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
- 공모사업에는 성남시 등 5개의 시·군이 응모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선정. 산성동 복지회관은 어린이, 영유아 동반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열악한 보행환경,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을 받았음
- 주민들의 불편사항 파악을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계단,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는 정문, 1층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턱 문제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선정
- 돌계단의 높이를 낮추고 경사로 설치, 주차장과 통행로의 구분, 장애인주차구역 마련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간을 개선
- 2016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중 81%가 접근성과 보행환경의 안정성이 좋아졌다고 응답

〈그림 3-30〉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체험교육



〈그림 3-31〉 산성동 복지회관



4) 화성시

- 화성시는 국내 최초로 2008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또한 2009년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2017년 폐지). 2009년부터 화성시에서 건립 중인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모두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 여성청소년수련원, 자원봉사센터,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 대표 사례
- 화성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문성 및 시행규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및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체험교육 등을 실시

(1) 나래 울

- 2011년에 개관한 복합복지타운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복지욕구의 증가, 노령인구 증가,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복지시설 확충 및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로 인해 조성
- 친환경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며, 경기도 최초로 BF 인증 1등급을 받았음

(2) 화성시청 민원실

- 2018년 화성시는 민원실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2018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 업무영역별로 분리된 창구마다 색상을 달리해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코너, 스마트 이용 코너, 휠체어·유모차·목발 대여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
- 민원대의 높이를 낮추고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해 이용편의를 높였으며, 고층상담실, 복지 상담실, 수어안내통역도우미 배치, 화상수어시스템과 각 창구마다 언어장애 및 외국인 민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필담보드까지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

〈그림 3-32〉 나래 울



〈그림 3-33〉 화성시청 민원실



제4절 사례조사의 종합

1. 해외사례

〈표 3-2〉 해외사례의 종합

구분	미 국	영 국	노르웨이	일 본
동향	재활공학 발전, 장애물 제거, 접근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UD전개	인클루시브디자인을 통해 사회·문화·인지적 제약을 가진 사회 소수 계층의 니즈 파악	ICT 및 복지기술을 우선 순위로 제2차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시행	공용서비스·공용품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구체화한 상품·서비스 개발 보급이 진행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cessible Lond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 마을 만들기 UD 시티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사업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ADA) 건축장애물법 공정주거개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차별 금지법(DDA) 평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NS 1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트빌딩법 배리어프리법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cess Living Wesleyan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ependence Matters Inclusive Design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tovner T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외출 안심 화장실 하트 폴 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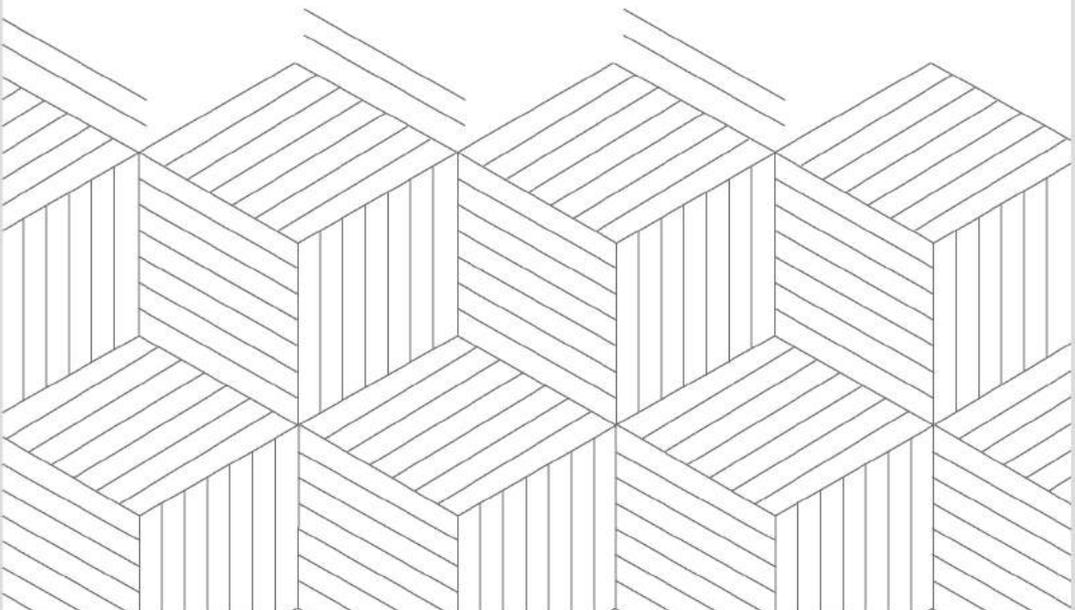
2. 국내사례

〈표 3-3〉 국내사례의 종합

구분	서 울	경 기
동향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품 뿐만 아니라 안내사인 및 정보영역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운영
정책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서울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교재 오감으로 느끼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

제4장 수원시 여건분석

- 제1절 수원시 인구 현황
-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법·조례
-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인증제도
- 제4절 공감디자인 관련 사업



제4장 수원시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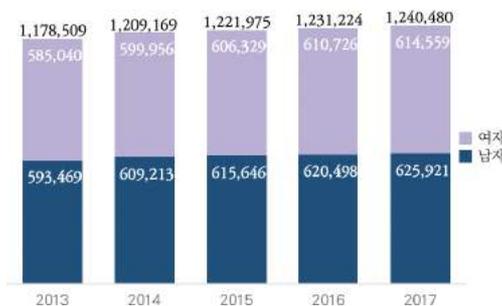
제1절 수원시 인구 현황

1. 인구구성 및 추이

- 2018년 수원시의 총 인구는 1,242,987명으로, 2017년 대비 2507명 증가
- 수원시의 인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 2017년의 인구밀도는 10,248(명/㎢)
- 2017년 수원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남성은 625,921명(50.5%), 여성은 614,559명(49.5%)으로 남녀성비는 균등한 편
-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14,076명 증가하여 인구증감률은 2.6%가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11,364명이 증가하여 인구증감률은 0.75%가 증가. 인구증감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 수원시 총 인구 1,262,84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23,020명으로 9.4%를 차지. 2035년 수원시 총 인구 1,377,451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05,085명으로 22.1%를 차지하여, 2035년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그림 4-1〉 수원시 인구구성

2017.12.31.기준/(단위 : 명)



〈표 4-1〉 장래 인구 추계

2018.08.26.기준/(단위 : 명)

인구구조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인구	1,247,133	1,262,843	1,321,317	1,359,764	1,377,451
0-14세	174,654	175,758	177,826	177,250	176,946
15-64세	949,459	954,518	957,117	934,620	895,420
65세 이상	123,020	132,567	186,374	247,894	305,085
고령화지수	9.9%	10.5%	14.1%	18.2%	22.1%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

자료: 경기통계(<https://stat.gg.go.kr>)

2. 영유아 및 어린이

- 2017년 14세 이하 어린이는 173,571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14.4%를 차지
- 2013년에는 14세 이하 어린이는 186,513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16.2%를 차지, 2015년에는 180,842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15.27%를 차지하였음. 수원시의 14세 이하 어린이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2017년 14세 이하 어린이를 20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4세 이하 어린이는 3,237명 감소하여 5.89%가 감소하였으며, 5~9세 어린이는 89명이 감소하여 0.15% 감소. 반면 10~14세 어린이는 160명이 증가하여 0.27% 증가

〈표 4-2〉 수원시 영유아 및 어린이

2017.12.31.기준 / (단위 : 명)

연령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4세	58,413	60,295	59,851	58,157	54,920
5~9세	58,050	58,506	59,254	59,617	59,528
10~14세	70,050	67,208	61,737	58,963	59,123

자료: 경기통계(<https://stat.gg.go.kr>)

3. 노인

-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1,667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9.29%를 차지
-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9,227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7.77%를 차지하였고, 2015년은 99,750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8.42%를 차지. 수원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75명이 증가하여 6.87%가 증가

〈표 4-3〉 수원시 노인 인구

2017.12.31.기준

연령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5세 이상(명)	89227	94472	99750	103992	111667
총인구대비(%)	7.77	8.05	8.42	8.71	9.29

자료: 경기통계(<https://stat.gg.go.kr>)

4. 장애인

- 2016년에 수원시의 장애인 등록 수는 41,411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3.36%를 차지
-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40,693명에서 718명이 증가하여 1.73%가 증가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1,132명(51.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4,401명(10.63%), 뇌병변은 4,363명(10.54%), 청각·언어가 4,182명(10.10%) 순으로 나타남

〈표 4-4〉 수원시 장애 등록 인구

2018.04.13.기준

장애 등록 인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록장애인 (명)	39856	40406	40693	41411
총인구대비(%)	3.38	3.34	3.33	3.36

자료: 경기통계(<https://stat.gg.go.kr>)

5. 외국인 거주자

- 2017년 수원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37,852명으로 수원시 총 인구 중 3.05%를 차지
- 2016년과 비교해봤을 때, 37,183명에서 669명이 증가하여 1.77%가 증가하여 외국인 거주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다만, 여성 외국인 거주자는 2015년 18,213명에서 2016년에 17,837명으로 376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17,766명으로 71명이 감소하여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
- 수원시 외국인 거주자 중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국적이 많으며, 그 중 중국인 거주자가 28,646명(75.68%)으로 가장 많은 편

〈표 4-5〉 수원시 외국인 거주자

2018.02.28.기준 / (단위 : 명)

성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남	15,434	17,829	19,138	19,346	20,086
여	14,918	17,112	18,213	17,837	17,766
총	30,352	34,941	37,351	37,183	37,852

자료: 경기통계(<https://stat.gg.go.kr>)

제2절 공감디자인 관련 법·조례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
- 현재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검토 요청

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기본·실시설계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 및 컨설팅을 실시
- 2018년 현재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표 4-6〉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협의 현황

구 분	건물개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검토협의 완료	비 고
2015년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통2동 문화센터 ■ 장안구 송죽동 행복센터 ■ 팔달구 노인복지관 ■ 호매실 청소년 문화의 집 	
2016년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탄동 공공도서관 ■ 광고 푸른숲도서관 ■ 우만1동 주민센터 	
2017년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서둔동 벌터 체육문화센터 ■ 평동 행정복지센터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안내사인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
2018년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 팔달구 노인복지관 ■ 광고 푸른숲도서관 (진행중) 	

제3절 공감디자인 관련 인증제도

1. 아동친화도시

- 수원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 복지 친화도시로 인증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5년 7월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체에 가입,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조성하였고, 2016년 수원시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17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13번째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고, 2018년에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유공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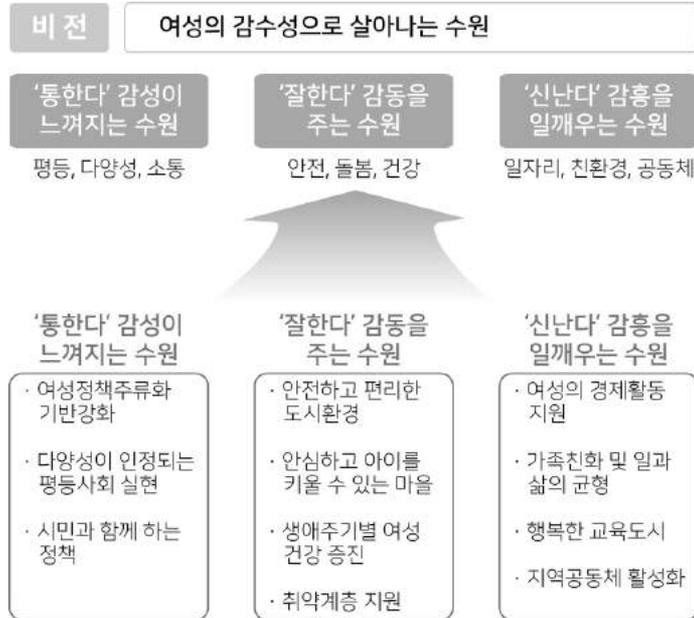
〈그림 4-2〉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2. 여성친화도시

-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뒤 여성정책팀을 신설, 지속적인 여성친화적 정책 수립
-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 2기 여성친화도시(2016~2020년) 정책 추진 중
-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국무총리기관 표창 수상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안전, 건강복지, 일자리, 소통 등 7개 영역에서 33개 사업을 추진
- 수원시 여성 안심·안전사업, 둘째 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고위험 임신부 건강관리지원 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등의 과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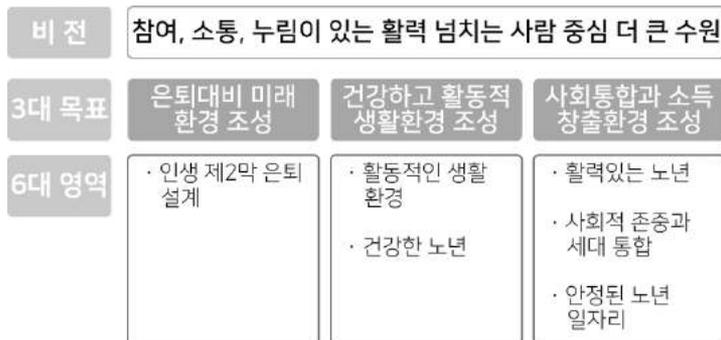
〈그림 4-3〉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3. 고령친화도시

- 2016년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 수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3개년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유지
-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6.9), 모니터단 위촉 및 운영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해당 영역에 대하여 수원시 고령친화도 진단결과 후 도출된 3대 목표 6대 영역 52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인프라 구축 실행
- 반기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그림 4-4〉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4.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 2017년 초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등을 점검하는 질문이 점검표에 포함
- 평가대상은 1단계(2017년) 정책 정립과 공공건축물의 평가, 2단계(2018년) 도로·공원 등의 평가, 3단계(2019년)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목표로 대상을 나누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선발·확대할 방침
- 현재까지 화성행궁, 수원시청사,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제19대 대선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시행
- 2017년 9월, 앞으로 건립될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권전문가3명과 건축·디자인 전문가 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
- 협의회의 인권 영향평가가 반영될 첫 번째 공공건축물은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회가 참여

〈그림 4-5〉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영향평가



1) 화성행궁

- 행궁을 찾는 인권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 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
- 인권약자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매표소 신설, 보행유도목재 교체, 통행로 경사로 교체 및 설치, 난간·안전 울타리 보수, 문지방 낮춤,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문자 음성 안내 등을 제안
- 문화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요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2) 투표소

-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20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은 접근성(대중교통), 투표소 입구(경사로 설치), 투표소 건물 내(승강기 설치 여부 등)로 구성, 개선이 어려운 경우엔 선관위에 투표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투표소에 자원봉사자 2명 의무 배치

〈그림 4-6〉 화성행궁 인권영향평가



〈그림 4-7〉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5. 지속가능관광 표준인증

- 수원시는 2016년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를 유치,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관광표준인증 (GSTC-Recognition). GSTC란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의 약자로, 2008년 설립된 국제 NGO. 지속가능관광, 생태관광전반에 대한 국제적 표준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
- 수원시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 표준은 4개 부문에서 43개 기준, 150개 지표로 개발
- 수원화성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지속가능 관광지 진단을 받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

〈그림 4-8〉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제4절 공감디자인 관련 사업

1. 생태교통 수원 2013

- 보행중심, 사람중심 도시,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해 압축적 시범사업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신평동, 장안동)에서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 시범지역 내 차량진입제한 및 생태교통 전용로 운영, 생태교통 이동수단 지원 및 체험, 도로정비 및 시설설치 등을 통해 보행이 편한 살기 좋은 생태교통형 마을만들기 등
- 수원에서 처음 시작하여 2015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만 카오슝에서 생태교통 페스티벌 진행

〈그림 4-9〉 생태교통 수원 2013



2. 양지말 어린이공원

- 팔달구 화서동 702번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으로, 2018년 7월 24일에 개관
- 경기도 내 최초의 장애물 없는 놀이터로, 개관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평가에서 전국 공원 최초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
- 2017년 10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참여한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
- 경사로를 설치한 통합 놀이대, 누워서 타는 시소, 바구니형 그네, 휠체어도 올라탈 수 있는 회전놀이대 등 장애아동들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
- 주요 지점마다 충분한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록·유도블록,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그림 4-10〉 양지말 어린이공원



3.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 2017년 4월 수원시 공직자 대상의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소개 후, 팔달구청과 그 주변 환경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진행
- 임산부 체험 장비 착용, 휠체어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부터 구청 로비까지 이동, 눈을 가리고 지팡이와 점자안내에 의지해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는 등의 체험 후 체험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토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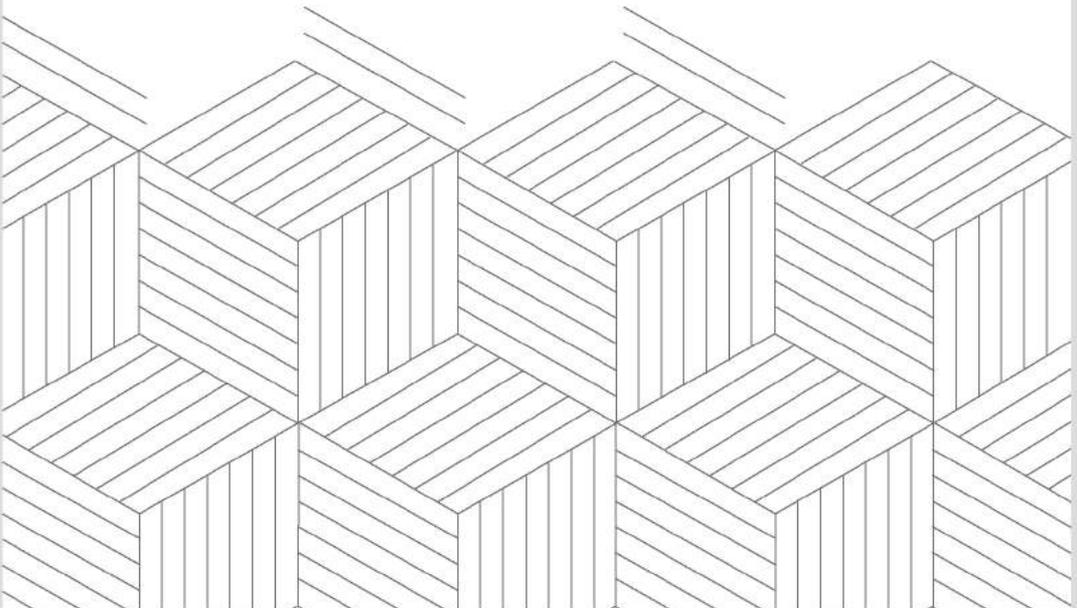
〈그림 4-11〉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제5장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제1절 비전 및 핵심가치
- 제2절 추진목표 및 핵심전략
- 제3절 전략별 추진사업
- 제4절 사업추진계획



제5장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수립

제1절 비전 및 핵심가치

1. 비전

〈그림 5-1〉 공감디자인 비전

“휴먼시티 수원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감디자인”

2. 핵심가치

- 공감디자인의 기본인 공감은 사회성의 핵심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견조율을 통한 참여와, 타인의 가치관 형성과정과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인지를 기본으로 하는 배려가 필요
- 이에 따라 공감디자인의 핵심가치는 〈그림 5-2〉와 같이 ‘참여’, ‘소통’, ‘배려’를 중심으로 실천전략의 방향 설정

〈그림 5-2〉 공감디자인의 핵심가치



[참여]
공감은

사회성의 핵심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소통]
공감은

타인의 주관적 세계를 인지하고 가치관 형성과정과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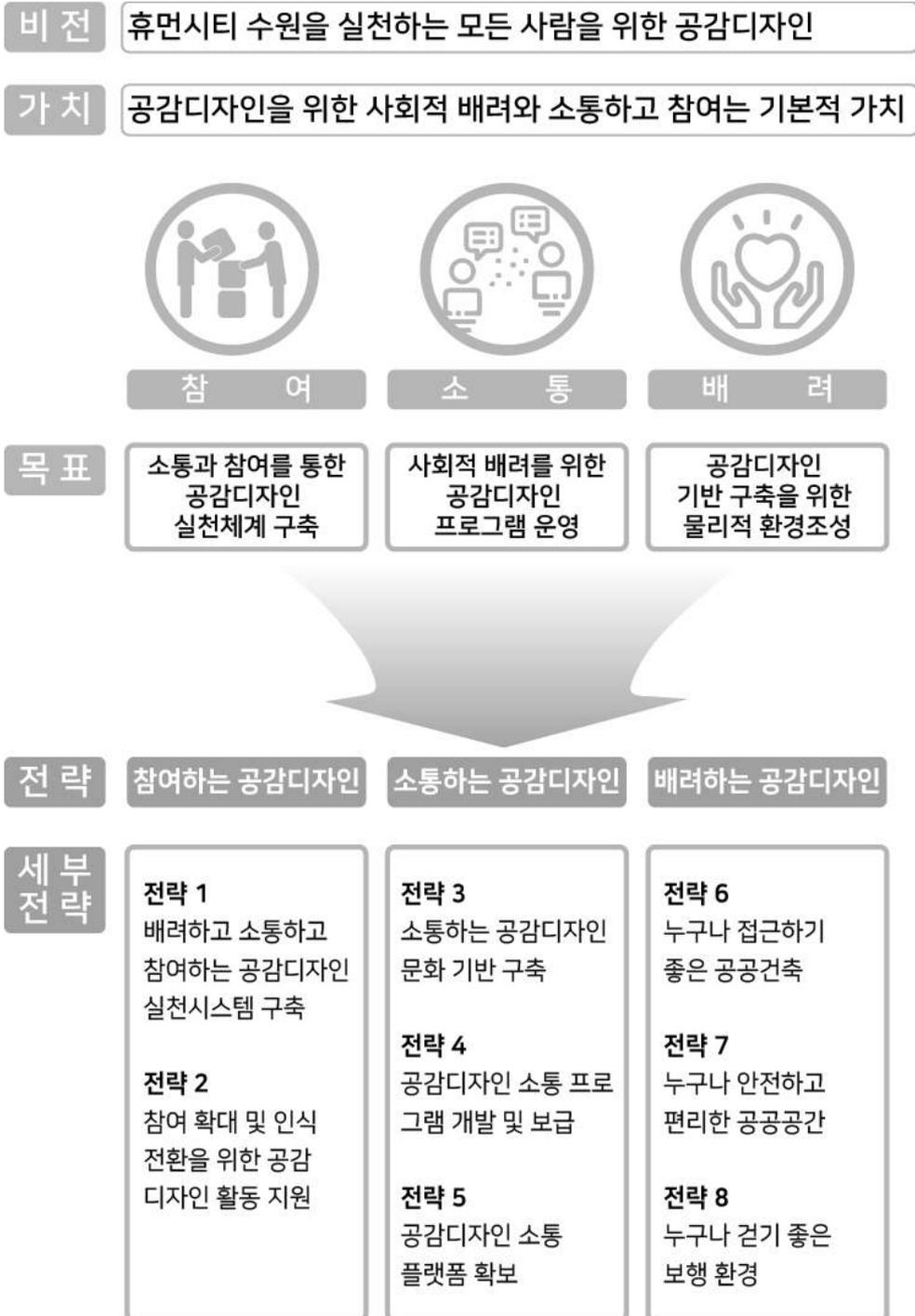


[배려]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인지능력

제2절 추진목표 및 핵심전략

〈그림 5-3〉 공감디자인의 추진목표 및 핵심전략



제3절 전략별 추진사업

1.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전략으로는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 시스템 구축,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 지원의 두 가지 전략을 제안
- 각 추진 전략별 주요내용은 <표 5-1>과 같음

<표 5-1>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전 략	전략별 주요내용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 시스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체계 등이 미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적용범위, 인증제, 시범사업, 공모전 등 공감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추진 2.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등의 상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외의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 행태를 고려한 세부 지침 필요 ■ 관련 사업·정책 실천을 위한 활성화 및 육성방안을 제시 ■ 공감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통합적 추진을 도모 3.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각종 공공사업 시 공감디자인 적용 여부 검토 ■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 ■ 당사자가 직접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디자인 프로세스 마련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공감디자인 홈페이지 개설, 다국어에 의한 홈페이지 내용 제공 등 정보 및 서비스에 공감디자인 적용 ■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감디자인 가이드라인, 만화 등 관련 자료를 개발 및 보급 ■ 공감디자인의 홍보를 위해 사례집, 팸플릿 등을 개발 및 보급 2.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공감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감디자인 공모전 추진 ■ 공모전 수상작 전시, 작품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감디자인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DB를 구축하여 주민참여를 유도, 웹 사이트를 통해 사례 공유

1)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 시스템 구축

(1)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체계 등이 미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무장애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는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수립이 필요

② 사업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타지자체 조례와 마찬가지로 <표5-2>의 내용으로 구성을 제안

<표 5-2>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 정의, 실행원칙 및 수원시장·시민의 책무를 규정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규정 ■ 시책 수립·실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 공감디자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③ 추진사례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황

- 6개 광역지자체와 7개 기초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조례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방침, 추진계획의 책정,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 가이드라인의 시행, 인증마크의 교부 및 표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의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
- 조례 실행 촉진을 위해 세부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
-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상위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일정한 공통된 경향을 보임

④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 등에 공감디자인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공감디자인에 대한 수원시민들과 관련사업자, 행정관계자의 이해와 인식 확산이 가능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조례안 작성, 공청회 개최·심의	입법예고·제정	-

(2)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
- 단계별·부문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감디자인 추진 전략 수립 필요

② 사업내용

- 2019년 정책과제로 검토 중인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관련 사항 반영 가능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공감디자인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

〈표 5-4〉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 공감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시책 및 제도, 구별 협력 방안, 홍보·교육 방안, 사업 발굴 및 평가 체계 방안 등 제시
2	공감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을 디자인·설치·운영 시 공감디자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의 디자인 방향성을 구체화시켜 세부 설계지침으로 제시 ■ 공감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상호 연계 ■ 공감디자인 관련 사업 및 정책 실천을 위한 활성화 및 육성방안, 공감디자인 교육 및 전문가육성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

③ 추진사례 :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 제주도는 2016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 2015년 12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 전략은 자립제주, 안심제주, 열린제주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단계별 사업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그림 5-4〉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④ 기대효과

- 시설물, 행정서비스 등 적용 범위 제한이 없는 범 도시적 개념으로, 공감디자인 인식을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 역할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5〉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용역발주	기본계획 수립	1차년도 시범사업	중장기 계획 사업 시행

(3)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제도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사업에서 공감디자인 적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
- 공감디자인 자문단이 공공사업에서 공감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미리 검토하여 (기획단계) 예산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② 사업내용

- 공공사업 예산수립 및 기획단계에서 공감디자인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방안 강구
-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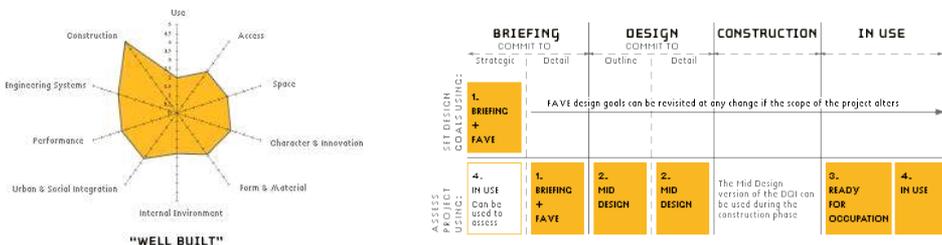
〈표 5-6〉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제도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사전 영향평가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예산 수립 단계에서 공감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공감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모니터링단과 연계하여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영향 평가 실시
cf.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 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 조사 네 종류로 구분하며, 자연환경자산과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항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③ 추진사례 : 영국 DQI(Design Quality Indicator)

- 기존 계획방법의 한계, 다양해진 대중 의견을 어떻게 계획에 적용하여 디자인, 비용, 기간 등 모든 프로젝트의 고려사항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
- 건축물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개조 시 진행되는 디자인 평가시스템으로 사업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 후 사용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품질 평가 지표
-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설명단계, 설계단계 이후 사용하는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그림 5-5〉 영국 DQI



④ 기대효과

- 공감디자인 정책의 긍정적 영향은 강화·확산, 권리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은 미연에 방지
- 당사자가 직접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디자인 프로세스 마련

2) 참여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 지원

(1)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 행정 및 각 사업자의 대책효과 발휘 여부는 지역주민의 행위가 적절한 상황에 있는지에 의존
- 공감디자인 정책 시행 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공감 디자인 보급 필요
- 공감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전환 필요

② 사업내용

- 공공기관의 각종 시각매체 등에 공감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
- 지속적인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이 중요

〈표 5-7〉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정보·서비스 공감디자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청각 등 정보장애인들은 정보의 취득 및 전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종 정보전달장치 등이 개발·보급되어 왔지만, 정보내용과 발신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역시 필요 ■ 통신 환경, 문장 표현, 페이지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공감디자인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개선, 수원시 공감디자인 홈페이지 개설, 다국어에 의한 홈페이지 내용 제공 등
2	공감디자인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매뉴얼,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감디자인 관련 자료 개발 ■ 공감디자인 홍보 자료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 공감디자인 팸플릿 등 개발

③ 추진사례 : 일본 ‘마음의 배리어프리’

- 배리어프리·유니버설디자인 추진요강에서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립하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음의 배리어프리라고 부르며, 사람들과의 행위와 의식작용을 의미

- 각 지자체에서 마음의 배리어프리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사고방식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그림 5-6〉 도쿄 마음의 배리어프리 팸플릿



④ 기대효과

-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안, 평가하는 등의 주체적인 의견 표명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8〉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홈페이지 개선	공감디자인 자료집 개발	-

(2)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의 문제점을 발굴, 디자인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감디자인 공모전 개최

② 사업내용

- 공모전은 홍보대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진디자이너·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실시
-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표 5-9〉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의 문제점을 발굴, 디자인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감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은 실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작품 패널과 함께 전시
2	공감디자인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매뉴얼,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감디자인 관련 자료 개발 공감디자인 홍보 자료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 공감디자인 팸플릿 등 개발

③ 추진사례 :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 2018년 9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여 도시재생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고자 엑스포 개최
-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하는 국제 컨퍼런스,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도깨비 상상관,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도깨비 실험터 등으로 프로그램 구성

〈그림 5-7〉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④ 기대효과

- 소통하는 공감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으며 수준 높고 창의적 도시 공간 구성에 기여
-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공감디자인 확산 및 수준 향상에 기여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10〉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및 공유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공감디자인 DB 구축	공모전 개최 및 체험부스 운영	공모전 개최 및 체험부스 운영

2.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전략으로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감디자인 소통플랫폼 확보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안
- 각 추진 전략별 주요내용은 <표 5-11>과 같음

<표 5-11>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전 략	전략별 주요내용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시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수원시 평가 매뉴얼에 따라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공감디자인 적용 평가 2.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사용자 참여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공감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감디자인 관련 컨설팅 외에도 재정적 지원 등 3.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기반 구축 ▪ 공감하는 의식을 소통하는 커뮤니티 구성 ▪ 경관협정 등을 활용한 공감디자인 적용 시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유도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기본 취지에 따라 다양한 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개발 ▪ 공무원 대상 공감디자인 체험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 자치대학 등을 활용하여 주민대상의 교육으로 확대 2.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감디자인 학교를 운영하여 학습 지원 ▪ 대여 가능한 공감디자인 체험 키트 등 제작 (ex. 구마모토 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공감디자인 소통플랫폼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다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다 플랫폼 및 인터넷, SNS 등의 활동을 통해 공감디자인 개선사항 도출과 아이디어 상시 제안 가능 ▪ 제안 사항에 대하여 정책추진단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지원 2.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독립부서 형태로 설치 제안 ▪ 교육·홍보, 모니터링단 운영 등 종합적인 공감디자인 지원이 가능한 센터 구축 ▪ 평가지표, 디자인 지침의 개발, 디자인 컨설팅 등 공감디자인 정책 활동 지원

1)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

(1)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배경 및 필요성

- 수원시는 시민계획단, 마을계획단 등 시민이 시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활성화
- 공감디자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부서 이행의지 강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② 사업내용

- 전문가·공무원·시민,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관련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표 5-12〉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평가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점검 ▪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시설 이용 개선사항 또는 아이디어 발굴
2	공감디자인 평가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평가·모니터링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사례를 정기적으로 교육 ▪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조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소개

③ 추진사례 : 송파 참살이디자인단

- 주민참여로 송파구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04월 결성
-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모집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된 25명의 주민 도시디자이너로 구성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 불편사항과 개선의견 제출, 주민여론 및 우수 사례 홍보 등이 주요 활동

〈그림 5-8〉 송파 참살이디자인단



④ 기대효과

- 공감디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제고 가능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감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 가능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13〉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연2회 교육·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1회 교육·모니터링 실시

(2)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용자 관점의 공감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디자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인식개선이 가능

② 사업내용

- 디자인 문제로 고민하는 관련부서, 산하기관, 민간단체 및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자문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감디자인 적용

〈표 5-14〉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자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경험이 없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자문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 디자인 전문가를 매칭하여 업체 디자인 개발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향 제시
2	공감디자인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감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③ 추진사례 : 경기디자인클리닉

-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에서 탈락한 제품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단터(전문가)와 1:1매칭 후 집중지도 진행
- 4회 이상 현장 방문지도가 원칙, 수시(서면, 인터넷) 지도를 통해 디자인 결과물 도출
- 다음 회차 인증제에 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등 가산점을 부여

〈그림 5-9〉 경기디자인클리닉



④ 기대효과

-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감디자인 적용 시설물 발굴을 통해 도시 삶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산 및 공감디자인의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15〉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전문가 및 지원업체 모집	연2회 컨설팅 진행	연4회 컨설팅 진행

(3)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 사업

① 배경 및 필요성

-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의 조성은 서비스정보의 개선과 구성원의 사고방식 개혁 없이 물리적 측면의 정비만으로는 불가능
- 지자체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공감하는 의식을 소통하는 커뮤니티 조성 필요

② 사업내용

- 공감디자인을 사적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감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운영

〈표 5-16〉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커뮤니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 기반 구축 ■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의식 보급부터 인재 육성 등 단계적으로 참여 유도 ■ 경관협정 등을 활용하여 공감디자인을 공공공간에 적용한 시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유도 <p>〈그림 5-10〉 공감커뮤니티 조성의 단계</p>

③ 추진사례 :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

- 2001년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능을 부여, 향후 추진 시책이나 행정 부서, 지역주민, 사업자의 역할 등에 관한 제안을 수렴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기초단체, 기업, 현민 등의 이해와 참여가 불가결하므로 각각의 역할 분담을 ‘유니버설디자인 행동지침’에 명기

〈그림 5-11〉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위원회



④ 기대효과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2)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배경 및 필요성

-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감디자인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
- 공감디자인 저변확대 및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증대

② 사업내용

-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공감디자인 확산이 중요
- 관련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표 5-17〉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일반인은 연령별, 전문가는 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행정전문가 등으로 분류하여 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수준별·시수별 교육안 제공
2	공감디자인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사례 등에 대한 교육 후 개선방안 토의 및 현장견학 등을 실시

③ 추진사례 : 경기도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 경기도 시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기법에 관한 심화과정을 운영
- 업무관계자 대상 시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교육 신청을 받아 체험교육(탐험대) 운영
-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포지엄 개최

〈그림 5-12〉 경기도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④ 기대효과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감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감디자인의 확산 및 공감디자인의 정착을 유도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18〉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직자 대상 시범교육 실시	연1회 공직자·일반인 교육 실시

(2)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에 대한 조기 체험교육 필요성 증대
- 주변 환경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체험하면서 공감디자인의 실천 방향 제시

② 사업내용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디자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 활동으로 공감디자인 학교 운영을 제안

〈표 5-19〉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전문가를 통한 교사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교사 연수 (교사용 지침서, 교육자료 활용 등) ■ 공감디자인 체험 교육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 안내 등
2	공감디자인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 제품 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감디자인 체험 키트 (ex.야사마치 이동 박물관) 등 준비 ■ 공감디자인의 실천이 가능한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느낌 경험 발표 및 공유, 창의 디자인 제작 등의 교육 진행

③ 추진사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 2017년 9월부터 시 교육청과 협력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첫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
- 교사용 지침서 개발 및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교사연수 실시
- 총 4교시에 걸쳐 이론 수업, 고령화 및 장애 체험, 유니버설디자인 이론 교육 및 창의 디자인 만들기로 진행

〈그림 5-1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④ 기대효과

- 공감디자인 기본 취지와 개념을 습득할 수 있음
-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참여를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음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20〉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운영 계획 수립	연2회 교사연수 실시	공감디자인 학교 운영

3) 공감디자인 소통 플랫폼 확보

(1) 수다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 수다플랫폼(www.sooda.or.kr)이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로 의견제시 및 상호교환, 토론 및 투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형식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
- 정책제안과 원탁토론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
- 수다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채택된 정책제안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

〈그림 5-14〉 수다플랫폼



② 사업내용

- 수다플랫폼은 2017년 수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를 통해 개발·운영되었으며, 2018년 부터 정책기획과 시민협치팀에서 운영 중

〈표 5-21〉 수다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수다플랫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다플랫폼, SNS 등을 통해 디자인 개선사항, 아이디어 상시 제안 가능 ■ 수다플랫폼을 통해 채택된 제안사업의 해결 과정을 공유 및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공유
2	수다플랫폼 정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업 진행 시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 시민, 학생,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 구현

③ 추진사례 :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 시민, 학생, 디자이너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소통과 참여의 장
- 시민 제안을 통해 시범 사업 주제를 공모하고, 시민 투표를 거쳐 시범사업 주제가 선정
-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 운행 유도 디자인인 괄호등과 쉼표등, 이웃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인 노란우체국 등이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디자인 결과물

〈그림 5-15〉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④ 기대효과

-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감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해결방안 및 진행과정까지 시민과 공유하여 투명행정을 실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 추진을 위한 계획들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② 사업내용

-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현 도시디자인과 내 팀을 추가하여 독립부서 형태로 설치 제안
- '참여하는 공감디자인'의 사업으로 제안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조례 제정 시 공감디자인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감디자인센터의 운영에 대한 추진근거 마련

〈표 5-22〉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디자인의 추진 및 홍보를 위해 교육자료 제작, 현장답사, 세미나 등의 다양한 연구, 교육, 정책 활동 추진 평가지표, 디자인 지침의 개발, 디자인 컨설팅 등 공감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지원

③ 추진사례 : 뉴욕 CAD (Center for Active Design)

- 도시환경설계를 이용한 물리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ADGs)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원, 전문가 육성, 관련 조직의 교육 및 홍보 등의 복합적 활동을 위해 설립
- CAD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미지역을 대상으로 활력 있는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커뮤니티 개발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그림 5-16〉 뉴욕 CAD



④ 기대효과

- 공감디자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안의 도출과 바람직한 운영체제 형성 가능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23〉 공감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별 계획	전담 조직 운영계획 수립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

3.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 배려하는 공감디자인의 전략으로는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안
- 각 추진 전략별 주요내용은 <표 5-24>과 같음

<표 5-24>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전 략	전략별 주요내용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추진 중인 수원시 매뉴얼 수립 ▪ 공감디자인 평가 체계 구축 2.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주민센터 민원실 등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에 시범적으로 공감디자인 적용 3.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구청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안내사인 개선을 통해 공감디자인 적용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의 배리어프리 실태 점검 및 평가 ▪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2019년 정책과제로 제안) 2. 통합놀이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놀이터 설치 권장하여, 수원시 구별 최소1개소 이상의 통합놀이터 설치 ▪ 각 아파트 단지 내 1개소 이상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유도 3.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을 대표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의 업그레이드 ▪ 공공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공감디자인 적용 (범죄예방, 기저귀 교체, 성별영향 등)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공시설물 주변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 시범사업 실시 2.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가로 조성 및 대표 보행가로 선정, 지속 관리를 통해 보행불편 사전 방지 ▪ 개선요구가 높은 가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거리 조성 ▪ 보행자·차량 영역 구분 요소 제거 등의 디자인 개선 사업 실시 3. 수원형 관광을 위한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수원 화성 이미지 구축 ▪ 장애인용 동선, 안내사인 점검 등

1)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

(1)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 공감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 평가체계 구축과 효과적 실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현재 수원시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연구 진행 중

② 사업내용

- ‘참여하는 공감디자인’에서 제안한 공감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평가체계와 연계
- 관련부서 : 2018년 도시디자인과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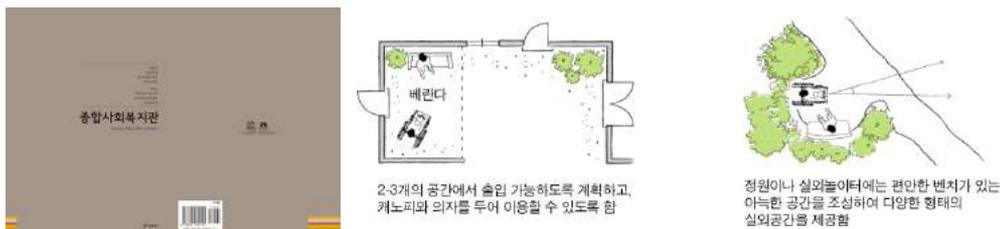
〈표 5-25〉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적용 평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분석 및 수원시 현황을 고려한 공감디자인 적용 평가체계 제시 ■ 공감디자인 적용 평가절차·항목·방법 등 도출 및 평가도구·서식 등 개발
2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범위 : 건축물을 비롯한 내·외부 공간, 시설물, 정보매체 등 ■ 합리적인 수준의 심화된 수원의 고유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단계별 적용 지침 수립, 데이터북 작성 등

③ 추진사례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4종을 개발하여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지표로서 활용
- 디자인 기본방향, 세부공간 디자인, 법적 기준 및 권장사항, 체크리스트 등이 주요 내용

〈그림 5-17〉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④ 기대효과

- 건축심의, 공감디자인 심의 등에서 심사기준으로 적용
-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공감디자인 적용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26〉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 사업추진계획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용역발주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2)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① 배경 및 필요성

-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에 이용자 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부재
- 법적 최소 기준의 설치를 넘어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

② 사업내용

- 공감디자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후 적용디자인 체험 등 홍보 및 파급효과 모색
-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도시정책실 건축과,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보건소 등

〈표 5-27〉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주민센터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진행 ■ 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외국인 등 공감디자인 시민체험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공건축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 도출 ■ 관련 실국 및 자치구에서 대상지 추천 및 신청,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2	공감디자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체험단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토대로 공감디자인을 적용을 통한 공간 디자인 개선(안) 개발 및 적용 ■ 공간 유형별로 동선을 색깔로 구분하여 누구나 찾기 쉬운 공간으로 배치하는 등 디자인 개발, 보완, 검증 및 디자인 시공 진행

③ 추진사례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

- 주민센터를 재구성하여 효율적 업무공간 및 주민 공유 공간 마련
- 2015년 80개 동으로 시작,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년 402개 동에 확대 시행
- 공간의 유형별로 동선을 색깔로 구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민원대 제작 등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그림 5-18〉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



④ 기대효과

- 시민들이 공감디자인을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 수원시 민원서비스의 시민 체감 효과 향상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28〉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예산편성	구별 4개소 시범사업	구별 4개소 추가 시범사업	구별 4개소 추가 시범사업

(3)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① 배경 및 필요성

- 수원시 산하기관별 상이한 안내사인 디자인 및 체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혼란
- 무분별한 안내사인 설치, 부적절한 설치 위치 등으로 쉬운 정보 습득이 불가
- 인지하기 쉬운 수원형 안내사인 개발을 통하여 통일된 안내사인 설치 필요

② 사업내용

- 2017년 장안구청에서 안내사인 개선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공공청사와 문화체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 후 사업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
- 관련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각 구청, 동 주민센터 등

〈표 5-29〉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공청사 주변 안내사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공시설 주변 안내사인 현황 조사·분석 후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 보행자 이동방향 및 시선, 경로결정지점을 고려하여 시각적 방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문화체육시설 주변 안내사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 등 일시에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감디자인 적용 안내사인 개선 ■ 문화체육시설에서의 안내사인은 짧은 시간에 정보를 일고 진행방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표기

③ 추진사례 : 서울시 지하철

- 2016년 「서울 지하철역사 정보 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지하철 역사에 설치·관리되는 정보안내체계디자인과 배치·제작에 적용되는 원칙 및 세부지침 등 제시
- 정보 표현 및 배치에 일관성을 가지며 읽기 쉽도록 통합된 정보안내체계를 제시

〈그림 5-19〉 서울시 지하철



④ 기대효과

-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0〉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1개소 시범사업	2개소 시범사업	2개소 시범사업	2개소 시범사업

2)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

(1)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①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BF인증제도를 도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시설 계획 단계부터 검증 및 등급 부여를 통해 타 시설과의 차별화 시도
- BF인증제도의 지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여 실태 파악 및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② 사업내용

- 배리어프리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특성을 공감디자인 관점에서 관찰
- 관련부서 :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표 5-31〉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점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 편의증진법 상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 설치여부 등 확인
2	공감디자인평가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평가단이 주기적으로 현장실태점검 및 보고를 시행하도록 운영

③ 추진사례 : 경기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 실시
-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특성과 사용자의 행동 특성을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관찰, 현황 파악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그림 5-20〉 경기도 배리어프리 실태 조사



파손되거나 굴곡이 진 청자블록



경계석 턱 낮추기와 보도 기울기로 굴곡이 심한 보도



보행이 곤란한 울퉁불퉁한 보도

④ 기대효과

- 배리어프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가능
-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시 활용 가능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2〉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모니터링 1회 실시	모니터링 2회 실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2) 통합놀이터 설치

①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아동에 초점을 두고 놀이터를 계획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물리적·심리적 장애 요소로 작용, 통합놀이터 설치를 통해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 필요

② 사업내용

-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통합놀이터 설계에 최대한 반영
- 관련부서 : 생태공원과 공원조성팀

〈표 5-33〉 통합놀이터 설치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통합놀이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놀이터 내 모든 이용시설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시설로 계획 ■ 통합놀이터 설치를 권장하여, 수원시 구별 최소 1개소 이상, 각 아파트 단지 내 1개소 이상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유도

③ 추진사례 : 양지말어린이공원

- 2001년에 완공된 3000㎡ 면적의 어린이공원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2017년 계획 수립, 이용자 의견수렴, 기술·실시설계용역 실시

- 통합 놀이대에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설치
- 산책로 등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동선 확보, 화장실 등 모든 공원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그림 5-21〉 양지말어린이공원



④ 기대효과

-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며 공감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
-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음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4〉 통합놀이터 설치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단계별 계획	구별 1개소 시범사업	구별 1개소 추가 시범사업	구별 2개소 추가 시범사업	1개소 예상소요예산 : 5억

(3)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① 배경 및 필요성

- 수원시를 대표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의 업그레이드
-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대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공간 계획 등의 화장실 개선이 필요

② 사업내용

- 공감디자인 적용 화장실 시범사업과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화장실문화팀

〈표 5-35〉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감디자인 적용 화장실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와 여유로운 공간으로 계획 ▪ 가급적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사인 필요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 설치
2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공화장실 중 개선요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감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 실시

③ 추진사례 : 구마모토 외출 안심 화장실사업

- 화장실 걱정 없이 모두가 외출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 설치 사업
- 공공시설이나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협력 시설을 모집
- 휠체어, 오스트메이트 대응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부착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

〈그림 5-22〉 구마모토 외출 안심 화장실사업



④ 기대효과

- 화장실 문화의 선도도시 수원의 이미지 강화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6〉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실태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시범사업실시

3)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 환경

(1)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①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진입로(입구)에 대한 배리어프리는 적용이 되었으나, 주변 도로에 대한 배리어프리는 미적용된 상태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보행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 개선 필요

② 사업내용

-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등 가로에서 출입구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사업 대상
- 관련부서 : 시설공사와 공공건축팀

〈표 5-37〉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공공시설 주변 보행환경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의 적용 실태 조사 및 평가 ■ 주요 공공시설물 주변 보행환경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2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주요 대중교통시설부터 해당시설까지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리어프리 적용. 경우에 따라 안내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정비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접근로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하여 설치,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후문 등 부출입구 설치

③ 추진사례

〈그림 5-23〉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추진사례

[지양] 보행접근로의 불명확한 경계 [권장] 장애물이 없고 여유 있는 폭의 접근로 [권장]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된 출입구



자료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④ 기대효과

- 해당시설 주변의 다른 시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파급효과 발생
- 해당시설의 이미지 업그레이드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38〉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사업 : 사업추진계획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실태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시범사업실시

(2)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①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의 대표적 공공공간인 가로공간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사람중심의 가로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불편을 사전에 방지

② 사업내용

- 2016년 수원시는 장안구 만석로 68길 외 9곳을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문화 조성
-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생태교통팀

〈표 5-39〉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 사업내용

연번	추진사업명	사업세부내용
1	대표 보행가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m 내 도로 중 보차 구분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표 보행가로로 선정 ■ 사람중심의 가로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불편을 사전에 방지
2	보행가로 디자인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노면표시를 줄이거나, 보행자·차량의 영역을 구분하는 요소 제거, 굴곡도로를 조성하는 등의 디자인 개선 사업 실시 ■ 시각적 효과를 통한 보행가로 조성 외에도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적치물·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③ 추진사례 :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공간을 조성
- 10m내외의 도로 중 보차 구분이 없는 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 2013년 구로구 개봉로 3길 등 2개소를 시작으로 62곳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 2018년 24곳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예정

〈그림 5-24〉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④ 기대효과

-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 생활권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효과 기대

⑤ 단계별 추진계획

〈표 5-40〉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 사업추진계획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별 계획	대표보행가로 선정	가로별 실시설계	시범사업 추진	연차별 확대추진

(3) 수원형 관광을 위한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① 배경 및 필요성

- 수원 화성과 같이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는 관광지에서는 배리어프리디자인 관점에서 특정 사용자의 문제해결에만 초점
- 일반 관광객들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에

제4절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향

1) 공감디자인의 제도적 기반 구축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수원시의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자치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조례 내용에 전담부서, 관련 기구 설치, 위원회 (혹은 평가단)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사업추진의 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
- 공감디자인 매뉴얼 구성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공감디자인 조직 설치

- 공감디자인 전담조직은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전략의 ‘공감디자인 소통 플랫폼 구축’ 세부전략 하부 사업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 내 추가로 관련 팀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 제안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
- 공감디자인 관련 사전검토 및 평가지원을 위한 위원회 및 지원기구 설치 등은 전담조직 구성 이후에 추가 검토하여 설치하되, 공감디자인 평가단 활동을 중심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수원시 도시디자인 관련 디자인기획관 임명에 따라 전담조직이 구성될 예정으로 전담조직 내에 관련 팀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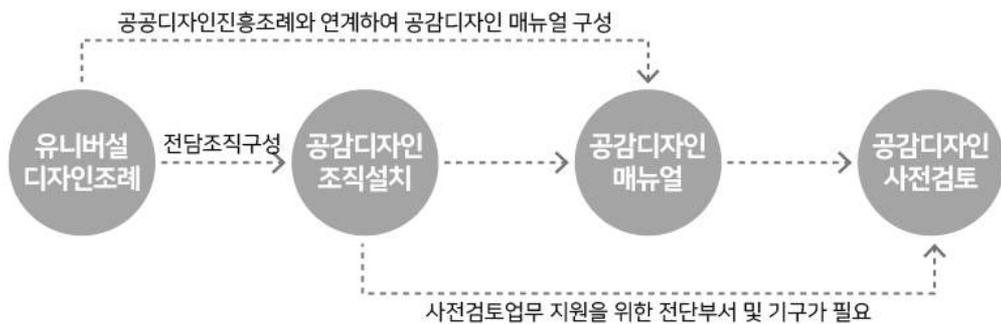
(3) 공감디자인 매뉴얼

- 공감디자인 매뉴얼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사전에 기획하는 것이 중요
-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매뉴얼」 등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한 연구들이 준비 중
-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감디자인 매뉴얼을 준비하여, 조례 제정 이후에 사전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4)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 공공건축,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공감디자인 적용 여부와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토 및 디자인 지원하는 프로그램
- 공감디자인 평가단(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전담조직 및 기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

〈그림 5-27〉 공감디자인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소통과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1)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 공감디자인 평가단은 수원시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공감디자인 적용 여부 및 디자인 지원 등에서의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
-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전략에서 제시한 세부전략사업으로 공감디자인 클리닉, 공감 디자인 거버넌스 플랫폼, 공감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활동의 주체 및 지원기구 역할

(2) 공감디자인 클리닉 운영

- 공감디자인 클리닉이란 공감디자인의 사전영향평가 등에서 디자인 지원 및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시행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의미하며 평가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을 제안

(3) 공감디자인 거버넌스 플랫폼

- 공감디자인 거버넌스 플랫폼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디자인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개설을 의미
-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디자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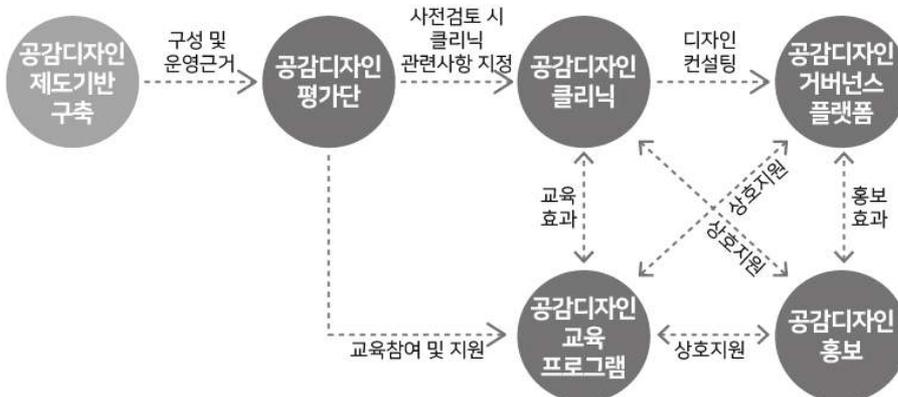
(4) 공감디자인 교육프로그램

- 공감디자인 클리닉 및 거버넌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공감디자인의 기본 개념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공감 디자인평가단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5) 공감디자인 홍보

- 공감디자인 클리닉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등을 공감디자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연계
- 공감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그림 5-28〉 소통과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3) 지속가능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1)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 배려하는 공감디자인에서 제안하는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매뉴얼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해야함

- 또한 공공공간에서의 공감디자인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기초DB를 구축해야함

(2)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개선

- 최근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배리어프리인증제, 인권영향평가 등이 실시되어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공공건축물 가운데 이용자가 집중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사업 제안함
-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이 주변 지역에서부터 접근하는 주요 동선에 대한 공감디자인을 적용하며, 이와 연계하여 수원시 대표보행가로 등의 사업 제안
- 기존의 통합놀이터 설치사업의 확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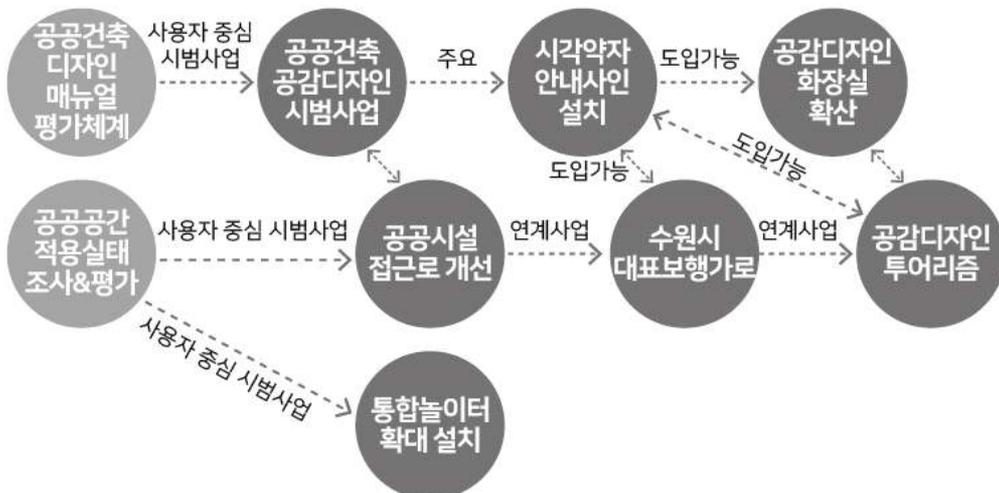
(3) 공공시각매체의 개선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개선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각약자 안내사인 등 공감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각매체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4) 공감디자인 확산

- 화장실, 놀이터 등 시민들의 주 사용 공간을 중심으로 공감디자인 적용 및 확대
-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심으로 공감디자인 적용하는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프로그램 제안

<그림 5-29> 지속가능한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2. 단계별 추진계획

1)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표 5-42〉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전략	실천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단기(19~20)	중기(21~23)	장기(24~)	연구과제	사업과제	시범사업	제도개선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디자인 실천시스템 구축	공감디자인 실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유니버설디자인 실행칙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							■
	공감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단계별· 부문별 추진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공공시설물 디자인, 운영 시 디자인 방향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운영 시 디자인 방향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수립							■
참여확대 및 인식전환을 위한 공감디자인 활동지원	공공사업 공감디자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토	공공사업 예산 수립 단계에서 공감 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공감디자인 홍보 및 캠페인	공감디자인 홈페이지 개설, 다국어 홈페이지 내용 제공 등						■	
		가이드라인, 매뉴얼, 민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감디자인 자료 개발 및 보급						■	
		공감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실물로 제작하여 전시						■	
		공감디자인 DB를 구축하여 수상작 작품집 및 매뉴얼, 우수사례 등 공유						■	

2)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표 5-43〉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전략	실천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단기(19-20)	중기(21-23)	장기(24~)	연구과제	사업과제	시범사업	제도개선
소통하는 공감디자인 문화 기반 구축	공감디자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을 운영하여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시설 개선사항 또는 아이디어 발굴	■				■		
	공감디자인 클리닉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에 필요한 배경지식 및 사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	■				■		
	공감디자인 전문기관 선정 후	디자인 자문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 후 전문가를 매칭하여 디자인 방향 제시	■				■		
	공감디자인 적용 시점물의 경우	공감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
공감디자인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감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공감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	■	■			■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감디자인의 기본 취지에 따라 다양한 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 개발	■				■		
	공감디자인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공감디자인학교 운영	공감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현장학습 등을 실시	■				■		
	수다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감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교사 연수, 체험활동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 등	■	■			■		
	수다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교육자료, 체험키트 등을 준비하여 교육, 체험 및 창의디자인 제작 등 실시	■	■			■		
공감디자인 소통플랫폼 확보	공감디자인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수다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 상시 제안, 채택 사업 결과물 등을 공유	■				■		
	공감디자인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참여 기회 제공	■	■			■		
	공감디자인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공감디자인을 위한 킷돌타워 설치	■				■		
	공감디자인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교육자료 제작, 현장답사, 세미나 등의 다양한 연구, 교육, 정책 활동 추진	■	■			■		

3)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표 5-44〉 배려하는 공감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전략	실천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과제성격			
			단기(19-20)	중기(21-23)	장기(24~)	연구과제	사업과제	시범사업	제도개선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구축	공감디자인 적용 평가체계 구축	■	■				■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공감디자인 적용 매뉴얼 개발	■	■				■	
	시각악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	공공건축 공감디자인 시범사업	공감디자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	■			■	
		공공청사 주변 안내사인 개선	공공청사 주변 안내사인 개선	■	■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조사 및 평가	문화체육시설 주변 안내사인 개선	■	■			■		
	통합놀이터 설치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 점검	■	■			■		
	공감디자인 화장실 개선 사업	공공공간 배리어프리 적용 실태조사 및 평가	공감디자인 평가단이 현장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를 시행하도록 운영	■	■			■	
		통합놀이터 설치	구별 1개소 이상, 단지 내 1개소 이상 통합놀이터 설치 유도	■	■			■	
누구나 걷기 좋은 보행환경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	공감디자인 적용 화장실 시범사업 시행	■	■			■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시행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시행	■	■			■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	주요 공공시설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			■	
	수원 화성 등 관광지 공공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수원시 대표 보행가로 선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공공시설 접근로 개선 시범사업	■	■			■	
수원 화성 등 관광지 공공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사람중심가도를 조성 후 대표 보행가로로 선정	■	■			■		
		보행자·차량 영역 구분 요소 제거 등의 디자인 개선 사업 실시	■	■			■		
		이용 실태 및 기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실태 조사	■	■			■		
		시설별 디자인 개발 및 설계·시공 등 공공디자인 투어리즘 적용	■	■			■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단행본

-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디자인재단(2016), 서울 지하철역사 정보안내체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울특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2016),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 백서
 여성가족부,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소책자
 고영준(2011),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이담북스
 나채준(2014),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도널드 노먼(2018), 도널드 노먼의 디자인 심리학
 미호시 아키히로 외(2명)(2017), 공생의 유니버설디자인, 미세움
 이상대, 김은정(2018), 건강도시, 커뮤니케이션북스
 장효민, 박미여(2017), 아동 여성친화 도시 디자인(City design)
 프롬나드디자인연구원(2018), 공감을 디자인하다, 한국학술정보

학술지논문

- 고영준(2009), 일본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정책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22권 제1호, pp.217-230
 구미영(2011), 영국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pp.80-92
 김보일 외(2명)(2011),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pp.181-201
 변용찬(2006),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겨울호, pp.23-34

- 백은, 황소연(2017), 인클루시브 디자인 특성을 적용한 가구 디자인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15
- 소병일(2014), 공감과 공감의 윤리적 확장에 관하여, 철학, 제118권, pp.197-225
- 서우석 외(4명)(2018), 서울시 디자인정책의 변화 2006-2016, 예술경영연구, 제45집, pp.293-316
- 유보현, 장애인지원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257-267
- 윤훤(2011), DQI의 참여도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 논문지, 제18권 제5호, pp.51-59
- 이명훈 외(4명)(2014), 뉴욕의 건강도시 계획과정 및 추진체제, 국토계획, 제49권 제4호, pp.17-36
- 이슬기 외(2명)(2017),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pp.61-67
- 이충은, 박동일(2018),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3권, pp.545-568
- 이호승(2005), 일본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사례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19권 제1호, pp.27-38
- 임유경, 성은영(201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의 기본방향, AURI BRIEF, No.131
- 조성욱(2012), 어린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제34권, pp.501-510
- 정윤남 외(2명)(2014), 무장애(Barrier-Free)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개선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향 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0권 제3호, pp.11-22
- 정은하(2018), 고령친화도시,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공공정책, 제148권, pp.26-28
- 최길동, 광봉철(2013), 도시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pp.275-283
- 최성호, 은덕수(2010), 후쿠오카 나나쿠마선 지하철 공간의 인클루시브 디자인 사례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제16권 제16호, pp.120-129

보고서

- 강원발전연구원(2011), 강원도 유니버설디자인 기초연구
- 국토교통부(2014),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방안 수립 연구
- 대전발전연구원(2010),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4),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서울특별시(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특별시(2016), 제4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서울디자인재단(2013), 유니버설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2016), 2016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체계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2017), 2017 서울지하철 환승·이동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원시(2016),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표준 개발 보고서
 수원시정연구원(2017), 2017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2 삶의질위원회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 시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5400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 5821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 6045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381호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 5064호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경기도조례 제5904호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4866호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177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670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977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840호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5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207호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03호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432호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278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9920

웹문서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
고령친화서울 <http://afc.welfare.seoul.kr>
구마모토힌 <http://www.pref.kumamoto.jp.k.qp.hp.transer.com>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디자인경기 <http://design.gg.go.kr>
디자인서울 <https://design.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
수원 지속가능관광 <http://www.suwon.go.kr/sw-www/sw-tour/sw-tour08/sw-tour08-01.jsp>
울산 중구청 여성친화도시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30400200300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Center for Active Design <https://centerforactivedesign.org>

기타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9751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15558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17-183호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매뉴얼 및 평가체계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수원시 공고 제 2018-1750호
덜로이트(2018),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의 이해
수원시(2013), 2013 시정업무계획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305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8748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 평가항목

〈영문 자료〉

- Aase Eriksen(1985), Playground Design : Outdoor Environment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 Amy B. Demarest(2014), Place-based Curriculum Design : Exceeding Standards through Local Investigations
- David Driskell(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A Manual for Participation
- Department of Justice(2010),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 Edward Steinfeld, Jordana Maisel(2012),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 Einar LUND, Olav Rand BRINGA(2016), From Visions to Practical Policy: The Universal Design Journey
- Greater London Authority(2014), Accessible london : Achieving an inclusive Environment
- Linh Nguyen(2017), Universal Design in Norwegian Tourism Services for Customer Engagement, NTNU
- Norwegian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Nyttig for alle, nødvendig for noen
- Norwegian Government, National Transport Plan 2018-2029
- Norwegian Government,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 North Carolina Office(2011),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 NYC(2010), Active Design Guidelines
- NYC, Active Design Guide For Community Groups
- Roberta Null(2013), Universal Design: Principles and Models
- Roger A. Hart(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 Roger Coleman(2003), About : Inclusive Design, Design Council of England
- William Lidwell 외(5명)(2010),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Revised and Updated: 125 Ways to Enhance Usability, Influence Perception, Increase Appeal, Make Better Design Decisions, and Teach through Design
- 静岡市, 第2次 静岡市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行動計画

| 부 록 |

1. 중간보고회 반영사항

연번	자문내용	반영여부
1	방향과 비전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의 도시문제를 잘 고려하여 추진전략도출로 이행 필요	세부추진전략에 반영
2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 필요 (공간, 지역, 대상을 고려)	세부추진전략에 반영
3	연도, 상황별 사업추진 유형이 제시가 되어야 함	사업추진계획에 반영
4	추진프로세스와 관련사업 제시 필요	세부추진전략에 반영
5	공감디자인의 개념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상호보완 관계로 형성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디자인 프레임 구성 가능	추진목표 설정에 반영
6	공감디자인의 소통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통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세부추진전략에 제시
7	추진전략의 방향성을 먼저 선정한 후 나머지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사업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에 명시
8	실행단계별 추진계획 정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
9	향후 과제로서 커뮤니티 방법론에 대한 검토 필요	세부추진전략에 제시

2. 중간보고회 회의록

회의명	중간보고회
회의일시	2018년 08월 28일
장소	수원시정연구원 컨퍼런스룸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송창석 본부장, 이태현 팀장,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수원시청 : 장진우 팀장(도시디자인과), 최하영 주무관(도시디자인과) ▪ 자문위원 : 성기창 교수(한국복지대), 이석현 교수(중앙대), 차승화 교수(한양사이버대)
회의내용	<p>1. 이석현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해 전략 수립 부분에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음 ▪ 세부 전략과 사업의 내용이 어떤 공간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행정은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며, 단계별로 어떻게 해나갈지 현실화 가능한 단계별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내용이 수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 ▪ 공감디자인도 결국 도시의 특성과 맞물려 있음. 수원시의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잡아주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음 <p>2. 성기창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음 ▪ 유니버설디자인의 아쉬운 점은 보편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이며, 보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에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감디자인에는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부분은 완벽한 정책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음 ▪ 향후 정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전략을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이 다룰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누락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면 좋을 것 <p>3. 차승화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진행을 보면, 수원시 입장에서 공감 디자인의 윤곽이 실제로 실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부분이 도시공간과 복지정책부문으로 나뉘어서 실천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의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

4. 장진우 팀장

- 공감디자인은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적인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부분에서 정리할 것과 새로 시작할 내용들이 전략 속에 이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음
- 문제는 공감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 시설 부문에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소통과 커뮤니티로 발전시켜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
- 아직 국내에서는 주민협의체 형식 밖에 없는데, 참여의 방법에는 전시, 공모,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 이러한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조례를 제정할 때 수원시 내부에서 겪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치조례 제정은 내부 조직에서 노력해 할 부분으로 연구에서 강하게 주장해주면 좋겠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조례 제정이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감디자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디자인 부서만이 아니라 도로, 건축 등 관련 부서가 많이 있어 각 부서와 접촉·연계가 필요

5. 최하영 주무관

- 커뮤니티 내용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해주면 좋겠음

6. 송창석 본부장

- 사전기획과 사업의 추진, 사업 모니터링과 재정 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 디자인 수준, 사회적 가치 등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었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중요해질 것이며,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연구가 잘 정리되기 위해서는 의정토론회 등 시의회와 접촉하는 것도 필요

사 진



3.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회의록

회의명	제1차 집중검토회의
회의일시	2018년 07월 20일
장소	수원시정연구원 공동연구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자문위원 : 김용진 교수(한국교통대), 성기창 교수(한국복지대), 최하영 주무관(수원시청)
회의안건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전략 목표와 비전 등
회의내용	<p>1. 성기창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라 공감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음 ▪ 학술적 설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배리어프리 등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 법으로 제어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배리어프리 인증 정도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 (공감디자인 포함) 제도가 아니라 인식이나 교육, 가치의 문제 ▪ 지자체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 등에서 반영해야 함 ▪ 추진 목표와 전략을 구성할 때, 정책 대상이나 정책 분야보다는 정책 가치를 우선하되, '공감'이라는 기준에서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함 <p>2. 김용진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가운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어 본 과제에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가치들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 ▪ 공감디자인은 도시계획이나 설계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사업의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됨 ▪ 제시한 전략들을 디자인의 형태가 아니라 디자인의 과정과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사례에서 다루는 범위를 축소하고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p>3. 최하영 주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지도를 위한 컨설팅 영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 각종 협의 진행 시에도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공감디자인이 유니버설디자인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제목과 내용에 반영해주시기 바람

회의명	제2차 집중검토회의
회의일시	2018년 08월 03~12일
회의방법	서면자문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자문위원 : 김용진 교수(한국교통대), 성기창 교수(한국복지대) 이석현 교수(중앙대), 차승화 교수(한양사이버대)
회의안건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등
회의내용	<p>1. 김용진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의 문제 의식과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감 디자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이 실무 차원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단계에서 공감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는데 필요 이상의 노력이 필요, 물리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 공감디자인만의 차별성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이에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 여성·아동·노인 친화도시 등이 디자인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반면, 공감디자인은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하는 모든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원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안 따라서 공감디자인은 수원시의 모든 디자인 사업에 수원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차원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등을 포함하는 수원시의 디자인 철학이라 할 수 있음 2.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 여성·아동·노인 친화도시 등의 사용자 관점이 아닌, 공감 디자인은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공공디자인을 추진해 나가는 수원시만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방법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추진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단계에서 소통하며 디자인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p>2. 성기창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으로 제시한 ‘인간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감디자인’을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중심의 공공디자인’으로 축약해서 제시. 비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 ▪ 핵심전략 중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공공간’에서 안전의 키워드가 추가되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공간’이 좋을 것으로 판단 ▪ 공감디자인 시범마을조성, 공감디자인 사례 발굴, 찾아가는 공감디자인, 공감디자인 체험학교, 공감디자인 사전검토제 등과 같은 추진전략은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들과 단어적 또는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느낌 ▪ 위와 같은 공감디자인의 용어를 사용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감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공감디자인의 정의 및 특징 등을 구체화하여야 될 것 ▪ 공감디자인을 특정 상황에서의 불편함, 아픔, 불이익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소통 및 교감을 통한 디자인으로 상황(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국한해서 정의해 봄이 어떨지 제안

3. 이석현 교수

- 전체적인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접근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공감디자인의 내용을 시의 행정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과 가로 등의 접근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쉬움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감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특히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할 때, 개념을 한번 더 수원시의 현황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 수원시에서 공감디자인이 미약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잘 정리하면 해결방안도 보다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

4. 차승화 교수

- ‘유니버설디자인’은 아름다운 주제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
- 본 연구의 조사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앞서 언급한 특성들을 이미 연구자께서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기초 연구가 튼튼하니 추진전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 이를 토대로 연구에 더욱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조망된 수원시의 현실적 당면과제라고 생각
- 따라서 현재 잘 조사된 현황을 종합하여 추진전략의 근거가 될 당면과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본 연구의 문제정리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제시한 추진전략으로서의 ‘공감디자인’에 대한 내용 전개에 힘이 확실하게 실릴 것
- ‘공감디자인’이라는 수원시만의 브랜드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 배려/소통/참여라는 카테고리를 구분한 것도 적절
- 조금 보완을 고려해보길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정책과 제도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일단 각 카테고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이거나 아니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정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를 제안
- 일단은 신규 시설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 이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유용성이 시민들에게 홍보되면 기존의 시설 리모델링을 개선 시범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 (기존 시설들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과 유니버설디자인 요건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부서간의 협조가 매우 어려운 건이 현실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바람직)

회의명	제3차 집중검토회의
회의일시	2018년 11월 23일
회의방법	수원시정연구원 공동연구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자문위원 : 이승지 교수(인천가톨릭대), 정규상 교수(협성대), 차승화 교수(한양사이버대)
회의안건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세부전략 내용 검토
회의내용	<p>1. 정규상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받아주는가가 중요하므로 홍보, 캠페인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 교육이 중요 - 세부전략 수정 필요 ▪ 용인시의 경우에는 사업추진부서가 아니라 디자인 지원부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어 심의, 부서지원 등을 통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참고할 것 <p>2. 이승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디자인의 개념이 얼핏 보면 유니버설디자인보다 범주가 큰 상위의 개념같이 느껴지므로 서로 개념의 위계를 잘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이 수원시 브랜드로서 '공감디자인'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좋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브랜딩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용어 사용을 정교하게 검토해야함 ▪ 세부 사업에 있어서 공공화장실의 경우에는 소형상업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하면 좋을 것 ▪ 일본의 경우, 맥도널드나 편의점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실 공개를 많이 진행하고 있음 <p>3. 차승화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실제로 사업 정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움. 디자인도 어려운데, 여기에 공감이라는 부가가치를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이승지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브랜딩 작업이 필수적 ▪ 소통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를 만들어 내는 콘텐츠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디자인의 영역이 아님 ▪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감서비스 영역을 두고,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써 공감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를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함

회의명	제4차 집중검토회의
회의일시	2018년 11월 22~29일
회의방법	서면자문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자문위원 : 고영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이석현 교수(중앙대)
회의안건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세부전략 내용 검토
회의내용	<p>1. 고영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서비스개발을 위해 굳이 공감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Human Design과 Universal Design을 합해서 공감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Human Design'이 무엇인지 정의 할 필요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설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 외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너 주립대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포함 ▪ 추진전략 중 '수원형 관광을 위한 공감디자인 투어리즘 적용'에서 장애인용 동선의 '장애인용 동선'을 '이동약자용 동선'(Accessible route)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 등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 ▪ 추진전략 중 '시각약자를 배려한 안내사인 설치'를 위해 2019년 1개소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언급한 서울시 지하철 안내체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공공청사나 문화체육시설 주변 안내사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해서도 시범사업 실시이전에 기초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부모 등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 있음 ▪ 선행문헌, 사례 조사, 이용자 혹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등 체계적인 리서치를 통해 수원시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안내사인, 통합놀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결과의 퀄리티가 좋으면 소문이 나고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기 때문임 <p>2. 이석현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계획의 진행은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 ▪ 수원시 공감디자인이 필요한 공간, 대상, 지역 등이 대략적이라고 제시되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관련 부서와 추진업무 등도 추가되었으면 함. 대신에 이러한 내용은 수원시청에 의견서를 보내서 부서별 협조 업무내용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비전 및 핵심가치는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수원시에 있어서 공감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구상안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 세부내용에 있는 단계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단계별 주요 방점을 정리해도 좋을 것. 위치는 단계별 추진 계획 앞에 위치하면 될 것 ▪ 결론이 중요한 부분인데 보다 수원시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함

4.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년 12월 05일(수) 13:30 ~ 16:30
- 장 소 : 더함파크 1층 대강의실
- 발 제 자 : 성기창 교수 (한국복지대), 정수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채완석 팀장(경기도청)
- 토 론 자 : 정수진 연구위원(좌장), 성기창 교수, 채완석 팀장
- 참 석 자 :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본부장) 등 전문가 및 시민 50여명

2)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분)	내 용	
13:30~14:00	30'	사전등록	
14:00~14:30	30'	개회사	
14:30~14:50	20'	발표	
14:50~15:10	20'		1.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전략 정수진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15:10~15:30	20'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사례와 법제화의 필요성 채완석 팀장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15:30~15:40	10'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성기창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15:30~15:40	10'	휴식	
15:40~16:20	40'	토론	
16:20~16:30	10'	폐회 및 기념촬영	

3) 발표

(1)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감디자인 전략 - 정수진 연구위원

- 수원시 시정의 기본방향인 '휴먼시티수원'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 및 관심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같이 더해져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공감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 ‘휴먼시티수원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감 디자인’이라는 비전을 통해 수원시가 담고 있는 정신을 정책에 담고자 하였고, 배려·소통·참여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각각의 전략들을 설정
- 공감디자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평가단 운영, 전문가 지원 제도 등을 갖추는 것이 핵심
- 평가단 운영, 클리닉 지원이 담긴 조례를 만들고, 사전검토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디자인정책 방향
-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다양한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과정도 필요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사례와 법제화의 필요성 - 채완석 팀장

- 공공디자인이란 모두를 위한 디자인, 모든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건강한 남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사회적 약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사회적 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약 26%를 차지. 또한 전국의 외국인 주민은 180만 명, 경기도는 인구대비 4.7%로 외국인 거주 자가 많은 편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 역시 깊지 못한 편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례로는 체험 전시장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 탐험대, 체험 교육 운영 등이 있음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북과 교육교재를 개발, 2013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사업 운영
- 사업을 추진하며 느낀 한계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주도적으로 역할이 이루어지기 힘들.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3)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와 나아갈 방향 - 성기창 교수

- 사회활동의 참여가 장애를 구분 짓는 기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의 역할이 중요
- 노인보행기, 유모차, 여행용 가방 등 이동 및 활동 시 바퀴사용자가 증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바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
- 도시 및 건축에서는 BF인증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 UD제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
- 유니버설디자인은 일반화의 보편성, 접근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성 2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함
- 공감디자인은 결국 소통했을 때에 우수한 개별적 사례가 만들어짐
- 문제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우수한 사례를 많이 축적하여 우수한 사례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



4) 토론 주요내용

-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사전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1) 정수진 연구위원

- Q.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감디자인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디자인을 개척한다기보다는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시만의 디자인정책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공감디자인을 만든 것입니다.
 - (성기창 교수님의 추가 답변) 유니버설클리닉 시스템이 공감디자인만의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체계화한 것이 공감디자인만의 독특한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 Q. 공감디자인 추진 사업은 수원시 전역에서 시행되는 건가요?
 -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 전역에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수원시 안에서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Q.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꼭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개인적으로 안내사인이 가장 먼저 개선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 Q.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주민이나 건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 Q. 모두에게 편리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적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모두에게 적용되는 편리한 디자인이다 보니 사용자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해결해 나가는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 Q. 수다플랫폼의 사용이 미비한 이유와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 연구원에서 제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운영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제안에도 넣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완석 팀장

- Q. 현재 외국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아직 사례가 없고 광역버스에 중국어까지 병기하도록 요청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 사례 한 가지가 있습니다.
- Q.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잘 추진 중인 편인가요?
 - 전체 예산 50억 원 중 유니버설 관련 사업비가 8-9억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에서는 경기도를 롤모델로, 시 단위에서는 서울시를 롤모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수진 연구위원님의 추가 답변)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보시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수원시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Q. 예산 100억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나 과제는 무엇인가요?
 - 장소 한곳을 정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니버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경기도 관내에 만들고 싶습니다. 100억을 집약해서 한곳에 만들겠습니다.
- Q. 넓지 않은 정해진 공공 소유의 공간에 어떻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넣을 수 있을까요?
 - 사용이 잘되지 않는 공간들도 많고, 약 70%의 어린이 공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을 찾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성기창 교수

- Q. 유니버설디자인 해외시찰을 가고 싶습니다. 추천 국가나 도시가 있나요?
 - 보행환경을 바꾼 독일 소도시나 베를린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보면 보행 환경에서 턱을 없앤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국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된 건축물 사례,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나요?
 - 배리어프리 인증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물을 찾아보시면 건축 영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 대부분이 해외 사례이지만 리모컨을 단순화시킨 제품으로 삼성에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리모컨에 메뉴를 따로 만들어 필요시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시킨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제품입니다.
- Q. 친환경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절약 관점과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을 한 세탁기와 건조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물의 양이 적게 들어가지만 같은 효능이 있는 디자인 제품입니다.
 - (정수진 연구위원님의 추가 답변) 바퀴가 접근 가능한 보도 만들어지면 친환경적 교통 수단을 사용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 Q. 유니버설디자인이 현실적인 시장성이 있나요?
 -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이 관심이 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BF인증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시장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요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5. 최종보고회 회의록

회의명	최종보고회
회의일시	2018년 12월 21일
장소	수원시정연구원 컨퍼런스룸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 송창석 본부장, 이태현 팀장, 정수진 연구위원, 최한솔 연구원 ▪ 수원시청 : 장진우 팀장(도시디자인과), 최하영 주무관(도시디자인과) ▪ 자문위원 : 성기창 교수(한국복지대), 이석현 교수(중앙대), 차승화 교수(한양사이버대)
회의내용	<p>1. 이석현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의 공감디자인 추진전략이 잘 수립되었으며, 단계적 적용방법과 추진전략에 잘 반영되었음 ▪ 기존의 다양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통합하여 수원시 특성에 맞는 방향을 잘 정립하였으며 핵심시범사업의 추진을 기대함 ▪ 부서별 추진사업(가능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감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로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좋겠음 ▪ 공감디자인이 수원시 공공디자인 브랜드로 확산 필요 <p>2. 성기창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기 적절 ▪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모호한 개념을 공감디자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념 정리하고 실천전략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호 관계속에 정리되었다고 판단됨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프레임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되며, 플랫폼과 클리닉을 통해 우수한 실천사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공감디자인 사례 중에서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에 대한 소개가 필요 ▪ 공감디자인 클리닉과 거버넌스 플랫폼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관계성을 표현한 개념도를 추가할 수 있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아질 것임 <p>3. 차승화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흐름에 적절한 필요성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목적에 맞게 정리되었음 ▪ 자료의 포괄적 종합조사를 후 이를 토대로 분류 체계화한 만큼 제안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체계가 잘 구축된 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범주에 대해 수원시 현황에 맞는 설정 검토 권장 ▪ 제안에 있어서도 공감디자인 성격에 맞게 타부서와의 협력과제 및 플랫폼 구축에 대해 제안 필요

4. 장진우 팀장

- 사회복지패러다임 변화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내용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됨
-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계획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됨
- 추진전략에 있어서 업무부서(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음

5. 최하영 주무관

-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
- 꼼꼼하고 정확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공감과 배려에 초점을 둔 점이 참신함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모호하여 공공디자인 공감디자인의 차이를 알기가 어려움
- 통합의 개념이라면 관련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실효성 있는 공감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사 진



| 저자 약력 |

정수진

공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chung@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도시경관 통합관리방안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안내사인 개선방안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최한솔

도시공학학사, 실내디자인학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foreversh93@suwon.re.kr

홍지선

산업디자인학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isunny_10@suwon.re.kr

